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

NABO World Economy Trends & Issues

CONTENTS

세계경제 동향

주요 선진경제 동향

주요 신흥경제 동향

대외경제 이슈 | 주요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추진 현황과 시사점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

총괄 정 지 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박 미 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강 은 정 경제분석관

작성 박 미 정 경제분석총괄과장
 황 진 솔 경제분석관
 김 경 수 경제분석관
 이 두 영 경제분석관
 강 은 정 경제분석관

지원 이 인 희 행정실무관
 안 소 정 자료분석연구원

-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 (☎ 02-6788-37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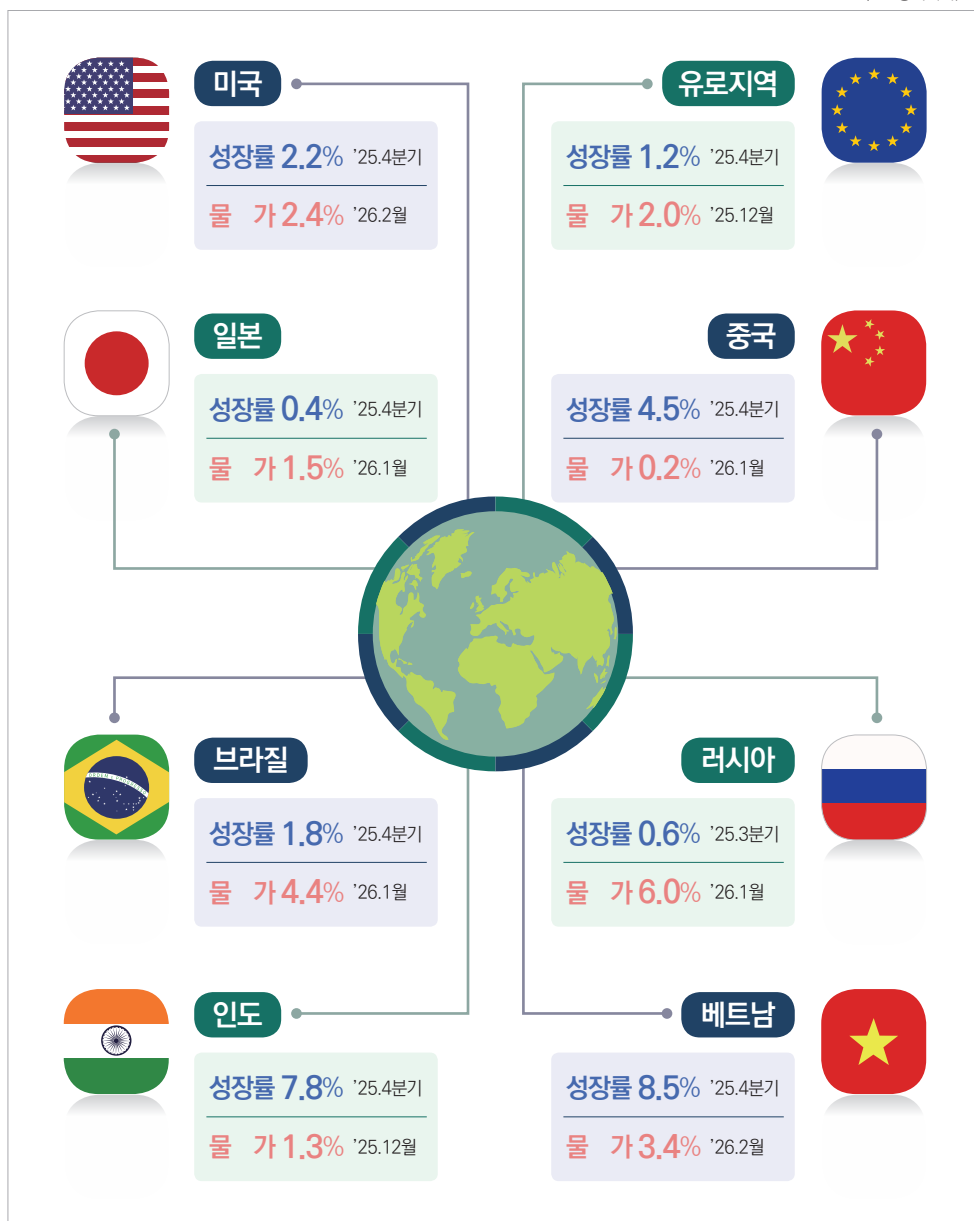
대외경제동향 & 이슈

I	세계경제 동향	
	1. 경제 동향	10
	2. 금융시장 동향	12
II	주요 선진경제 동향	
	1. 미국	18
	2. 유럽	23
	3. 일본	29
III	주요 신흥경제 동향	
	1. 중국	33
	2. 브라질	38
	3. 러시아	42
	4. 인도	46
	5. 베트남	50
IV	대외경제 이슈	
	주요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추진 현황과 시사점	56

I

대외경제동향

(전년동기대비, %)



주: 2025년 4분기 미국은 전기대비연율 1.4% 성장, 유로지역은 전기대비 0.2% 성장, 일본은 전기대비 0.3% 성장

세계경제 동향 종합

■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AI·반도체 등 특정 산업으로의 투자 집중에 따른 하방 위험이 상존

- 세계경제는 주요국 간 경기 흐름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 지속
- 다만,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우려
- 또한 AI가 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며 대규모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수익 실현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2월말 국채(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하락, 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승

- 2월말 미국 국채(10년물) 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물가 둔화 등으로 전월말 대비 하락, 유로존 국채 금리는 물가 둔화 등으로 하락, 일본 국채 금리는 일본은행의 정책 금리 인상 시점 지연 기대 등으로 하락
 - 2월말 선진국 주가는 미국 증시의 고평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신흥국 주가는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
- ※ 다만, 2026년 2월 28일 발생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 (선진경제) 미국과 유로지역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일본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별 경기 흐름이 차별화

- (미국) 수출 및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약화 우려 존재
- (유로지역) 산업생산과 내수부문의 성장세가 둔화
- (일본) 기업투자 개선 등으로 2분기 만에 성장세로 전환

■ (신흥경제) 주요 신흥국은 내수 부진으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인도와 베트남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 (중국)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둔화와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약화
- (브라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 정체
- (러시아) 제조업·건설업 생산 둔화와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 하락
- (인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 (베트남) 내수와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며 견조한 성장세 지속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지표

가. 세계경제 주요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연간	연간	1Q	2Q	3Q	4Q
미국	경제성장률 ¹⁾	2.8	2.2	-0.6	3.8	4.4	1.4
	산업생산	-0.7	1.1	1.0	0.3	1.6	1.7
	소비자물가	2.9	2.4	2.7	2.4	2.9	2.8
	실업률	4.0	3.9	4.4	4.1	4.5	3.7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²⁾	0.8	1.5	0.6	0.1	0.3	0.2
	산업생산	-3.0	1.6	0.5	1.1	1.7	2.0
	소비자물가	2.4	2.1	2.3	2.0	2.1	2.1
	실업률	6.4	6.4	6.6	6.3	6.4	6.2
일본	경제성장률 ²⁾	0.1	1.2	0.3	0.6	-0.7	0.3
	산업생산	-2.6	0.8	1.4	0.2	-0.2	0.7
	소비자물가	2.7	3.2	3.8	3.4	2.9	2.7
	실업률	2.5	2.5	2.5	2.5	2.5	2.5
중국	경제성장률	5.0	5.0	5.4	5.2	4.8	4.5
	산업생산	5.8	5.9	6.5	6.2	5.8	5.0
	소비자물가	0.2	0.0	-0.1	0.0	0.1	-0.2
	실업률 ³⁾	5.1	5.2	5.3	5.0	5.2	5.1
브라질	경제성장률	3.4	2.3	3.1	2.4	1.8	1.8
	산업생산	3.1	0.6	1.5	0.5	0.2	-0.7
	소비자물가	4.4	5.0	5.0	5.4	5.2	4.5
	실업률	6.9	6.0	6.8	6.2	5.6	5.2
러시아	경제성장률	4.3	-	1.4	1.1	0.6	-
	산업생산	5.0	1.3	0.3	1.3	1.3	2.1
	소비자물가	8.5	8.7	10.1	9.8	8.3	6.6
	실업률	2.5	2.3	2.3	2.2	2.2	2.1
인도	경제성장률 ⁴⁾	7.1	7.6	7.0	6.7	8.4	7.8
	산업생산	4.4	3.9	4.4	2.3	4.3	3.2
	소비자물가	5.0	2.2	3.7	2.1	1.7	0.8
	실업률	3.2	5.4	7.9	5.4	5.2	4.8
베트남	경제성장률	7.0	8.0	7.0	8.2	8.3	8.5
	산업생산	8.4	9.2	5.4	11.2	10.2	11.4
	소비자물가	3.6	3.3	3.2	3.3	3.5	3.4
	실업률	2.3	2.2	2.2	2.2	2.2	2.2

주: 1) 전기대비연율(%)

2) 전기대비(%)

3) 도시지역 실업률

4) 2024/25년, 2025/26년 회계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IMF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지표

나.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지표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1Q	2Q	3Q	4Q	1월	2월
정책 금리 (%)	미국	5.27	4.33	4.50	4.50	4.25	3.75	3.75	3.75
	유로존	4.13	2.38	2.65	2.15	2.15	2.15	2.15	2.15
	일본	0.13	0.52	0.50	0.50	0.50	0.75	0.75	0.75
	중국	3.34	3.03	3.10	3.00	3.00	3.00	3.00	3.00
	브라질	10.96	14.56	14.25	15.00	15.00	15.00	15.00	15.00
	러시아	17.83	18.92	21.00	20.00	17.00	16.00	16.00	15.50
	인도	6.50	5.77	6.25	5.50	5.50	5.25	5.25	5.25
	베트남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한국	3.40	2.60	2.75	2.50	2.50	2.50	2.50	2.50
장기 금리 (국채 10년, %)	미국	4.2	4.2	4.2	4.2	4.2	4.2	4.2	3.9
	독일	2.3	2.6	2.7	2.6	2.7	2.9	2.8	2.6
	일본	0.9	1.6	1.5	1.4	1.7	2.1	2.2	2.1
	중국	2.2	1.7	1.8	1.7	1.9	1.8	1.8	1.8
	브라질	6.9	14.1	15.1	13.5	13.7	13.7	13.6	13.6
	러시아	14.5	15.0	15.3	14.7	14.9	14.4	14.6	14.3
	인도	7.0	6.5	6.6	6.3	6.6	6.6	6.7	6.7
	베트남	2.8	3.4	3.1	3.2	3.6	4.0	4.1	4.1
	한국	3.2	2.9	2.8	2.8	2.9	3.4	3.6	3.5
주가 (포인트)	미국 Dow Jones	40,335	44,736	42,002	44,095	46,398	48,063	48,892	48,978
	독일 Dax	18,388	23,415	22,163	23,910	23,881	24,490	24,539	25,284
	일본 Nikkei	38,387	42,381	35,618	40,487	44,933	50,339	53,323	58,850
	중국 상해종합	3,059	3,592	3,336	3,444	3,883	3,969	4,118	4,163
	브라질 BOVESPA	128,245	140,051	130,260	138,855	146,237	161,125	181,364	188,787
	러시아 MOEX	3,013	2,837	3,013	2,874	2,865	2,767	2,783	2,799
	인도 SENSEX	77,226	80,795	77,415	83,606	80,268	85,221	82,270	81,287
	베트남 VN30	1,283	1,621	1,364	1,478	1,863	2,031	2,030	2,062
	한국 KOSPI	2,632	3,163	2,481	3,072	3,425	4,214	5,224	6,244
환율	달러/유로	1.08	1.13	1.08	1.18	1.17	1.18	1.19	1.18
	일본 엔/달러	152	150	149	144	148	157	154	156
	중국 위안/달러	7.18	7.17	7.26	7.16	7.11	7.03	6.97	6.92
	브라질 헤알/달러	5.39	5.57	5.71	5.43	5.32	5.48	5.25	5.14
	러시아 루블/달러	92.7	82.5	83.7	78.5	82.9	78.2	75.7	77.3
	인도 루피/달러	83.7	87.3	85.5	85.8	88.8	89.8	92.0	91.0
	베트남 동/달러	25,065	24,993	24,837	25,052	25,187	25,121	25,074	25,044
	한국 원/달러	1,364	1,422	1,467	1,356	1,402	1,435	1,427	1,425
	달러 인덱스	104.2	100.8	104.2	96.8	97.8	98.3	97.0	97.6
상품	CRB지수	536	548	547	569	546	540	547	552
	국제유가 ³⁾	79.2	67.7	71.0	69.3	67.2	60.6	62.4	67.5
금융위험 지표	경제 불확실성 지수	216	-	369	501	353	-	-	-
	미국 신용스프레드(%p)	1.6	1.7	1.8	1.8	1.7	1.7	1.6	1.8
	신중국 채권 가산금리(%p)	3.6	3.4	4.0	3.7	2.9	2.7	2.7	2.7

주: 1)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2) 유로중앙은행(ECB) 기준금리는 레퍼금리(refinancing rate), 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미 Baa 회사채와 미 10년 국채 수익률 차,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J.P. Morgan EMBI+를 의미

3) WTI, Dubai, Brent 3종 평균

자료: 한국은행, CEIC, FRED, Bloomberg, Haver

세계경제 동향

■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AI·반도체 등 특정 산업으로의 쏠림에 따른 하방 리스크 상존

- (생산) '25.11월 세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전월대비 0.5%)
- (교역) '25.11월 세계 교역규모는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전월대비 -4.4%)
- (물가) '25.10월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3%로 전월대비 하락
- (불확실성) '25.11월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GEPU)는 371로 전월대비 하락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2월말 국채(10년) 금리는 전월말 대비 하락, 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승, 달러인덱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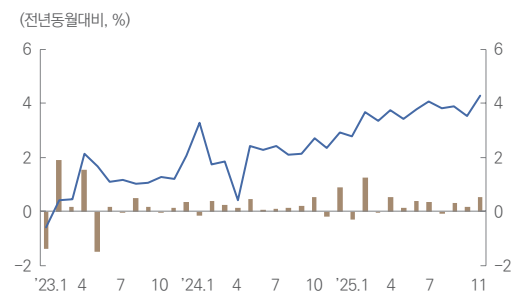
- 2월말 미국, 유로존,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전월말 대비 각각 0.30%p, 0.20%p, 0.13%p 하락
- 2월말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각각 0.6%, 5.4% 상승
- 2월말 달러인덱스는 전월말 대비 0.6% 상승
 - ※ 다만, 2026년 2월 28일 발생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 2월말 국제원자재(CRB) 지수는 552.3으로 전월대비 1.0% 상승
 - ※ 국제유가는 중동발 리스크로 3월 9일 배럴당 125달러(Dubai 기준)까지 급등하였으며, 이후에는 관련 긴장의 전개 양상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01] 경제 동향

■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AI·반도체 등 특정 산업으로 쏠림에 따른 하방 리스크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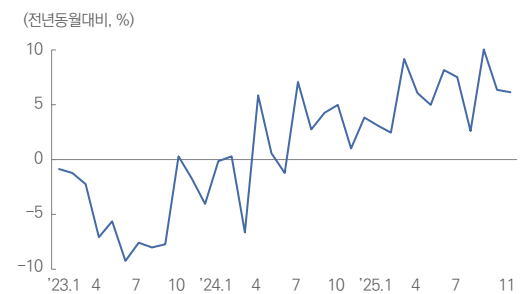
- (성장) 세계 경제는 주요국 간 경기흐름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다만,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우려
 - 또한 AI가 미래 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며 대규모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향후 수익 실현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
- ※ IMF('26.1월)는 2026년 세계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25.10월 대비 +0.2%p)하였으며, 선진국은 1.8%, 신흥국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¹⁾
- (생산) '25.11월 세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전월대비 0.5%)
 - 세계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9월) 3.9 → (10월) 3.5 → (11월) 4.3
- (교역) '25.11월 세계 교역규모는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전월대비 -4.4%)
 - 세계 교역규모(전년동월대비, %): ('25.9월) 10.1 → (10월) 6.4 → (11월) 6.2

[그림 1] 세계 산업생산 증감률



주: 계절 조정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림 2] 세계 교역무역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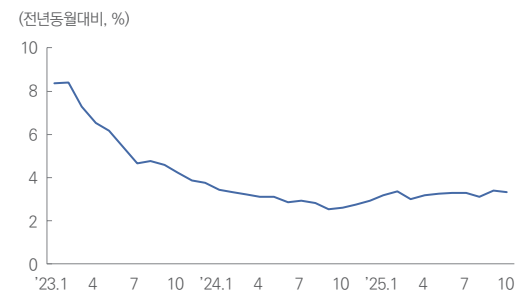


주: 교역규모(수출+수입)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lobal Economy: Steady amid Divergent Forces" (January,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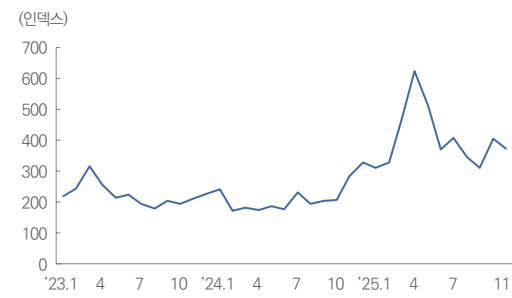
- (물가) '25.10월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3% 상승
 - 세계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8월) 3.1 → (9월) 3.4 → (10월) 3.3
- (불확실성) '25.11월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GEPU)²⁾는 371로 전월대비 하락
 - 경제정책 불확실성(인덱스): ('25.9월) 308 → (10월) 405 → (11월) 371

| 그림 3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가중 중간값(weighted median), 계절조정
자료: World Bank

| 그림 4 |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주: 장기평균(1997~2015)=100
자료: Baker et al.(2016)

2)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는 Baker et al.(2016)이 개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로 지수가 높아지면 경제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고조되었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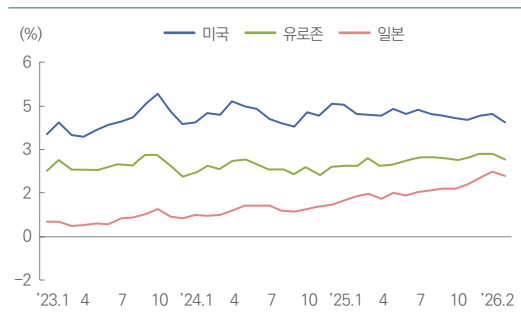
[02 금융시장 동향

가. 채권시장

■ 국제 금융시장에서 2월말 「국채(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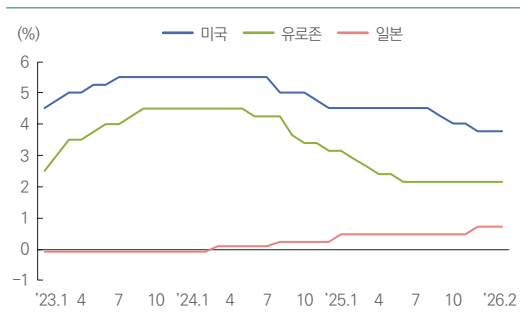
- '26.2월말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물가 둔화 등으로 전월말 대비 하락, 유로존 국채 금리는 물가 둔화 등으로 하락, 일본 국채 금리는 일본은행의 정책 금리 인상 시점 지연 기대 등으로 하락
 - 미국 국채 10년물(%): ('25.12월) 4.17 → ('26.1월) 4.24 → (2월) 3.94
 - 유로존 국채 10년물(%): ('25.12월) 2.85 → ('26.1월) 2.84 → (2월) 2.64
 - 일본 국채 10년물(%): ('25.12월) 2.06 → ('26.1월) 2.24 → (2월) 2.11
- ※ 다만, 2026년 2월 28일 발생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유가 상승,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기 국채 금리 상승(3월 4일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4.09%, 유로존 국채 10년물 금리 2.76%,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2.13% 기록)
- 미 연방준비제도(FRB)는 2026년 1월 정례회의(FOMC)에서 기준금리(FFR)를 3.50~3.75%로 동결하였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또한 각각 2월, 1월 기준금리 동결
 - 미 연준은 견조한 성장 속에서 지난해 실시한 금리 인하의 효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결
 - 유럽중앙은행은 경제성장,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
 - 일본은행은 지난 12월 실시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동결

| 그림 5 | 주요국 국채(10년)금리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유로존은 독일 국채 금리 기준
자료: Morningstar

| 그림 6 | 주요국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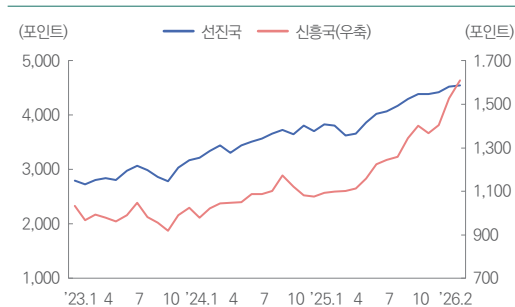
주: 유럽중앙은행은 레피금리(refinancing rate) 기준
자료: Morningstar

나. 주식시장

■ '26.2월말 전세계 「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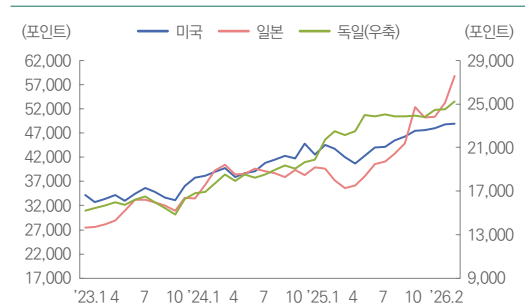
- 2월말 선진국 주가는 미국 증시의 고평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전월말 대비 0.6%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신흥국 주가는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5.4% 상승
- 미국은 AI 기업 고평가 논란 등으로 소폭 상승,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독일은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
 - 미국 다우존스지수(포인트): ('25.12월) 48,063 → ('26.1월) 48,892 → (2월) 48,978
 - 독일 닥스지수(포인트): ('25.12월) 24,490 → ('26.1월) 24,539 → (2월) 25,284
 - 일본 니케이지수(포인트): ('25.12월) 50,339 → ('26.1월) 53,323 → (2월) 58,850
- ※ 다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 그림 7 | 글로벌 주가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LSEG

| 그림 8 | 주요국 주가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LS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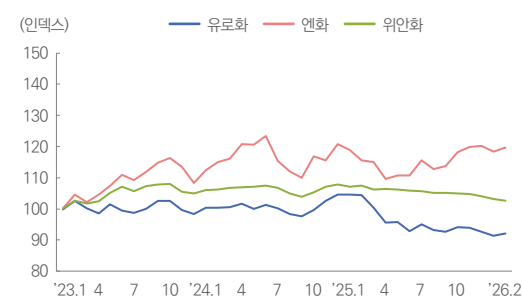
3)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다. 외환시장

■ '26.2월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유로화와 엔화 상승, 위안화 하락

-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대통령의 대 이란 강경 발언 등으로 달러인덱스가 상승하였고, 중국의 무역흑자 확대 등으로 위안화 가치 상승
 - 2월말 미 달러화 대비 유로화와 엔화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1.0%, 1.1% 상승하였으나 위안화는 0.6% 하락
 - 달러인덱스⁴⁾는 전월말 대비 0.6% 상승
-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안전자산 선호 요인 등으로 외환시장 내 달러화 가치 상승(달러인덱스는 2월말 97.6에서 3월 4일 98.8로 상승)

| 그림 9 |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주: 1) 2023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 그림 10 | 달러인덱스



주: 1973년 3월 = 100
자료: Bloomberg

라. 상품시장

■ '26.2월 「글로벌 상품가격」은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

- '26.2월 국제원자재(CRB) 지수⁵⁾는 552.3으로 전월대비 1.0% 상승
 - CRB 지수(인덱스): ('25.12월) 539.9 → ('26.1월) 546.9 → (2월) 552.3

4)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1973년 3월 = 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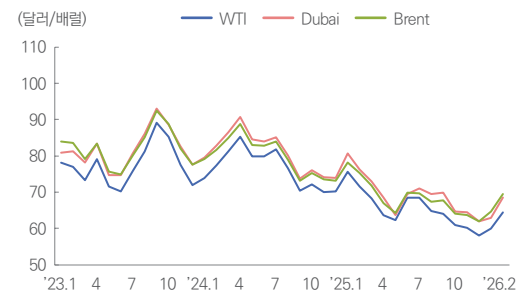
5)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지수는 곡물, 원유(WTI), 천연가스,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19개 주요 상품선물가격을 가중치에 따라 평균한 것으로 상품가격의 전반적인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 품목별 가중치는 에너지(39%), 농산물(41%), 귀금속(7%), 산업용 금속(13%)

| 그림 11 | 국제원자재(CRB) 지수



주: 1967년=100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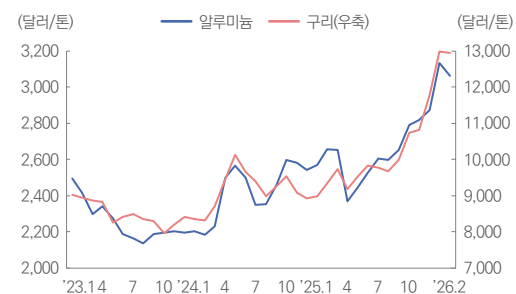
| 그림 12 | 국제유가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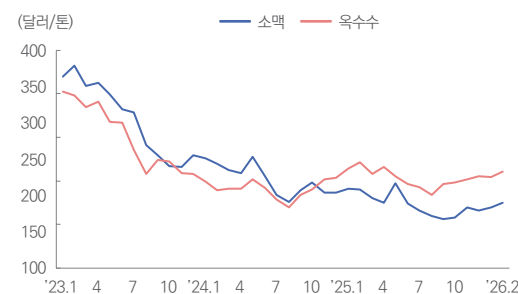
- '26.2월 국제유가는 미국-이란 간 핵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전월대비 상승
 - WTI(달러/배럴): ('25.12월) 58.0 → ('26.1월) 59.9 → (2월) 64.4
 - Dubai(달러/배럴): ('25.12월) 61.8 → ('26.1월) 62.7 → (2월) 68.5
 - Brent(달러/배럴): ('25.12월) 61.8 → ('26.1월) 64.6 → (2월) 69.4
- ※ 국제유가는 중동발 리스크로 3월 9일 배럴당 125달러(Dubai 기준)까지 급등하였으며, 이후에는 관련 긴장의 전개 양상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26.2월 비철금속 가격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전월대비 하락
 - 알루미늄(달러/톤): ('25.12월) 2,876 → ('26.1월) 3,134 → (2월) 3,065
 - 구리(달러/톤): ('25.12월) 11,791 → ('26.1월) 12,987 → (2월) 12,951
- '26.2월 곡물가격은 기상 여건 악화, 흑해 지역 물류차질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 소맥(달러/톤): ('25.12월) 166 → ('26.1월) 169 → (2월) 175
 - 옥수수(달러/톤): ('25.12월) 205 → ('26.1월) 204 → (2월) 211

| 그림 13 | 주요 비철금속 가격



자료: 런던금속거래소(LME)

| 그림 14 | 주요 곡물가격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BOX 1]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현황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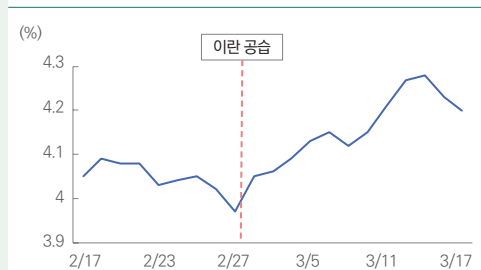
■ (현황) 2월 28일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내 분쟁 확산

- 미국과 이스라엘은 28일 토요일 오전 9시 45분(현지시간) 이란의 지휘부와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 정밀 공격 단행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무장 시도 저지, 미사일 제조 기반 무력화, 해군력 약화 등을 목표로 이란 공습 개시
- 이란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파르푸르 등 핵심 지도부 상당수가 공습으로 사망하였으나, 미국의 항복 요구에 항전으로 대응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⁶⁾을 사실상 봉쇄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기지(쿠웨이트, UAE, 바레인, 카타르 등)에 대한 공격으로 반격
- 이란은 새 최고지도자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였으며,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

■ (영향) 국제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로 변동성 증가 압력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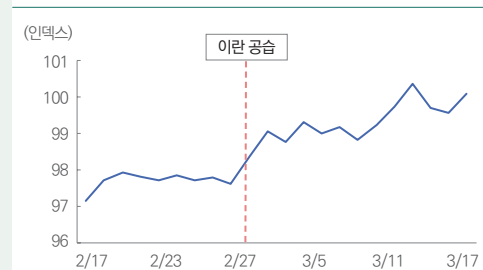
- (금융시장) 중동 지역 내 분쟁 확산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
 - 미국 정부 지출 확대,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2월 27일 3.97%에서 3월 17일 4.20%로 상승
 -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인덱스는 2월 27일 97.61에서 3월 17일 99.57로 상승
 -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물류 차질 우려로 3월 17일 \$158/bbl(두바이유) 돌파
- ※ 원/달러 환율은 2월 27일 1,424.5원에서 3월 17일 1,496원으로 상승

일간 미국 국채(10년) 금리 추이



자료: FRED

일간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CEIC

6)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7%가 통과하며,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2.7%를 담당(국회예산정책처, “중동분쟁 위험과 우리경제의 리스크,” 나보포커스 제115호, 2025.6.26.)

II

요약

주요 선진경제 동향

■ (미국) 수출 및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 약화 우려 존재

- 경제성장률(전기대비연율, %): ('25.2분기) 3.8 → (3분기) 4.4 → (4분기) 1.4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1월) 2.1 → (12월) 1.3 → ('26.1월) 2.3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5.11월) 3.2 → (12월) 2.4 → ('26.1월) 3.2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0월) 14.5 → (11월) 4.3 → (12월) 7.5
- 실업률(%): ('25.12월) 4.4 → ('26.1월) 4.3 → (2월) 4.4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 ('25.12월) 2.7 → ('26.1월) 2.4 → (2월) 2.4

■ (유로지역) 산업생산과 내수부문의 성장세가 둔화

-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25.2분기) 0.1 → (3분기) 0.3 → (4분기) 0.2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2.1 → (11월) 2.2 → (12월) 1.1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5.11월) 2.3 → (12월) 3.9 → ('26.1월) 2.0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0월) 1.2 → (11월) -3.4 → (12월) 3.4
- 실업률(%): ('25.12월) 4.4 → ('26.1월) 4.3 → (2월) 4.4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 ('25.10월) 2.1 → (11월) 2.1 → (12월) 2.0

■ (일본) 기업투자 개선 등으로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25.2분기) 0.6 → (3분기) -0.7 → (4분기) 0.3
- 광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1월) 0.6 → (12월) 0.8 → ('26.1월) 4.1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5.11월) 1.0 → (12월) 0.9 → ('26.1월) 1.8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1월) 6.1 → (12월) 5.1 → ('26.1월) 16.8
- 실업률(%): ('25.11월) 2.6 → (12월) 2.6 → ('26.1월) 2.7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1월) 2.9 → (12월) 2.1 → ('26.1월) 1.5

[01 미국⁷⁾

4분기 미국경제는 수출 및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

■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1.4% 상승

- 4분기 성장률은 수출 및 정부지출이 감소하며 전분기 대비 상승률 둔화
- 소비지출(2.4%), 민간투자(3.8%)는 전분기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수출(-0.9%), 수입(-1.3%), 정부지출(-5.1%) 등은 감소

■ 2025년 3분기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은 서비스업 성장률이 확대되고,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농업 어업이 큰 폭으로 성장

- 3분기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가장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5.2% 성장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6.0%), 농업어업(9.8%), 제조업(5.0%) 등은 양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건설업(-0.8%)은 감소

| 표 1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기대비연율, %)

	2024년	2025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국내총생산(GDP)	2.8	2.2	-0.6	3.8	4.4	1.4
농림어업	5.4	-	-16.9	-0.7	9.8	-
광업	2.8	-	-18.3	29.0	4.3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2	-	-5.0	-15.0	16.0	-
건설업	4.9	-	0.9	4.0	-0.8	-
제조업	3.0	-	-5.9	12.0	5.0	-
서비스업	2.8	-	0.9	4.2	5.2	-
소비지출	2.9	2.7	0.6	2.5	3.5	2.4
민간투자	3.0	2.0	23.3	-13.8	0.0	3.8
수출	3.6	1.7	0.2	-1.8	9.6	-0.9
수입	5.8	2.7	38.0	-29.3	-4.4	-1.3
정부지출	3.8	1.2	-1.0	-0.1	2.2	-5.1

주: 1)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2) 2026년 2월 20일 속보치(Advance estimate) 자료 기준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7) 미국 연방정부 섯다운에 따라 일부 통계지표의 발표 지연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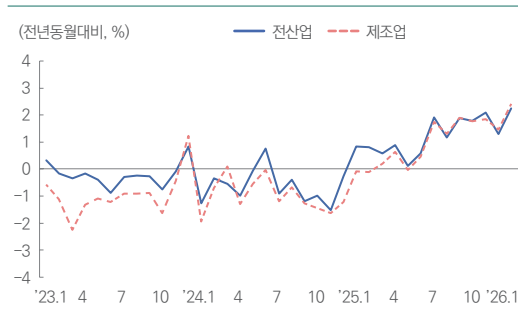
■ (생산) '26.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1월) 2.1 → (12월) 1.3 → ('26.1월) 2.3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1월) 1.9 → (12월) 1.5 → ('26.1월) 2.4

■ (소비) '26.1월 「소매판매액」은 7,33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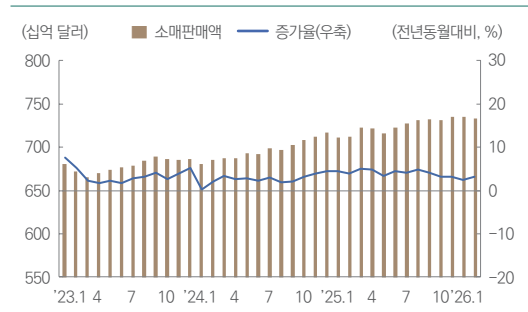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5.11월) 3.2 → (12월) 2.4 → ('26.1월) 3.2

| 그림 1 |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 그림 2 | 소매판매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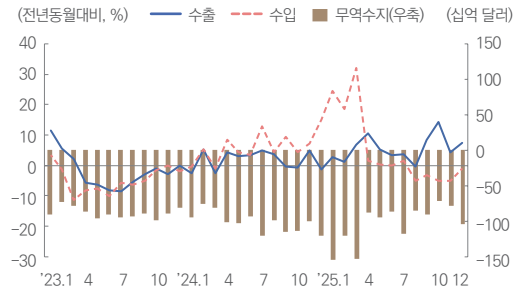
■ (교역) '25.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5% 증가, 「수입」은 1.2% 감소, 「무역수지」는 1,040억 달러 적자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0월) 14.5 → (11월) 4.3 → (12월) 7.5
- 수입(전년동월대비, %): ('25.10월) -5.1 → (11월) -5.1 → (12월) -1.2
- 무역수지(억 달러): ('25.10월) -720 → (11월) -785 → (12월) -1,040

■ (노동시장) '26.2월 「실업률」은 4.4% 기록하여 전월대비 0.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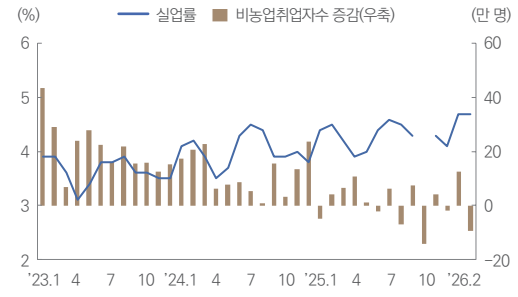
- 실업률(%): ('25.12월) 4.4 → ('26.1월) 4.3 → (2월) 4.4
- '26.2월 비농업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9.2만명 감소
 -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전월대비, 만명): ('25.12월) -1.7 → ('26.1월) 12.6 → (2월) -9.2

| 그림 3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 그림 4 |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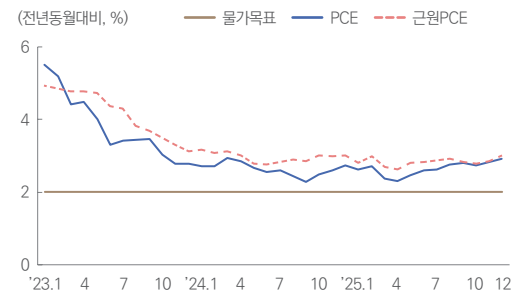
주: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16세 이상) 중 실업자의 비율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BLS)

■ (물가) '26.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2월) 2.7 → ('26.1월) 2.4 → (2월) 2.4
 - 부문별(전년동월대비, %): (식음료) 3.0 (주거) 3.3 (교통) -1.0 (의료) 3.4
- PCE물가⁸⁾ (전년동월대비, %): ('25.10월) 2.7 → (11월) 2.8 → (12월) 2.9
- 근원PCE물가⁹⁾ (전년동월대비, %): ('25.10월) 2.8 → (11월) 2.8 → (12월)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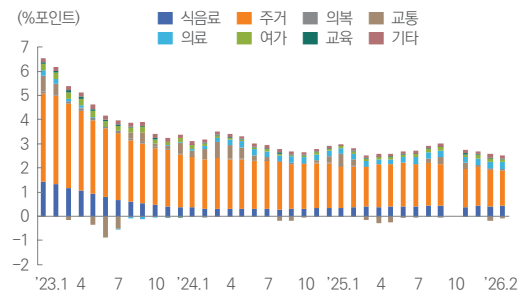
| 그림 5 | 물가상승률 및 목표¹⁾



주: 1) 미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경제분석국(BEA)

| 그림 6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

■ (금융) 2월말 「주가지수」는 전월말 대비 상승 「금리」는 하락, 「환율」은 상승

- (주가) 2월말 다우산업(DJIA)지수는 48,978포인트로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으나, S&P500지수는 6,879포인트로 전월대비 0.9% 하락
 - DJIA지수(포인트): ('25.12월) 48,063 → ('26.1월) 48,892 → (2월) 48,978
 - S&P500지수(포인트): ('25.12월) 6,846 → ('26.1월) 6,939 → (2월) 6,879
- ※ 다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8)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 물가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물가지수로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

9) 근원PCE물가지수는 개인소비지출에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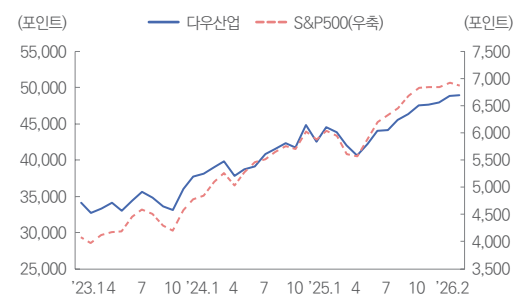
- (금리) 2월 미 국채(10년물) 금리는 3.9%로 전월대비 0.3%p 하락
 - (기준금리)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1월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
 - 국채 10년물(%): ('25.12월) 4.2 → ('26.1월) 4.2 → (2월) 3.9
 - 장단기 금리차(%p): ('25.12월) 0.6 → ('26.1월) 0.7 → (2월) 0.3

※ 다만, 2026년 2월 28일 발생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유가 상승,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기 국채 금리 상승(3월 4일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4.09% 기록)

- (환율) 2월 달러인덱스는 97.6으로 전월대비 0.6% 상승
 - 달러인덱스(인덱스): ('25.12월) 98.3 → ('26.1월) 97.0 → (2월) 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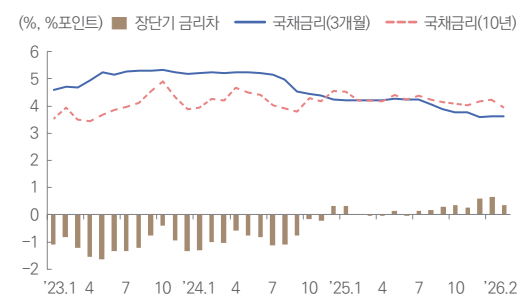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안전자산 선호 요인 등으로 외환시장 내 달러화 가치 상승(달러인덱스는 2월말 97.6에서 3월 4일 98.8로 상승)

| 그림 7 | 주가지수(DJIA, S&P500)



자료: S&P Global

| 그림 8 | 장단기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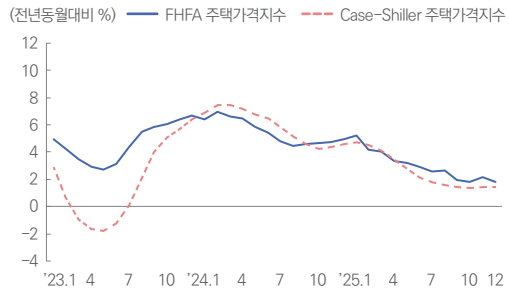
주: 월말 기준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 (주택시장) '25.12월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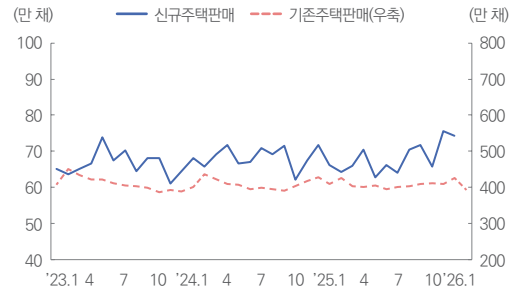
- FHFA주택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10월) 1.8 → (11월) 2.1 → (12월) 1.8
- (주택판매) '25.12월 신규주택판매는 75만채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하였으나, 기존주택판매는 '26.1월 391만채로 4.4% 감소
 - 신규주택판매(만채): ('25.10월) 66 → (11월) 76 → (12월) 75
 - 기존주택판매(만채): ('25.11월) 409 → (12월) 427 → ('26.1월) 391

| 그림 9 | 주택가격지수 증감률



주: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미국 20개 대도시 주택 판매 가격 기준
자료: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Case-Shiller

| 그림 10 |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



자료: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02 유럽¹⁰⁾

2025년 4분기 유로지역 경제는 산업생산과 내수부문의 성장세가 둔화

■ 2025년 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0.2% 증가(전년동기대비 1.2%)

- (경제활동별) 제조업(-0.3%)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비스업(0.0%)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 (지출항목별) 총고정자본형성(0.6%), 정부지출(0.5%), 민간소비(0.4%)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수출(-0.4%)과 수입(-0.2%)은 전기대비 하락
- (국가별) 스페인(0.8%)이 서비스업의 호조로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독일(0.3%)과 이탈리아(0.3%)는 소폭 개선, 프랑스(0.2%)는 전기 대비 성장폭 둔화, 영국(0.1%)은 성장세가 더딘 모습

| 표 2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기대비, %)

	2024년	2025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국내총생산(GDP) [전년동기대비]	0.8	1.5	0.6 [1.6]	0.1 [1.6]	0.3 [1.4]	0.2 [1.2]
농림어업	-0.6	1.6	1.4	-0.6	0.7	0.3
제조업	-1.7	2.8	2.2	0.3	-0.2	-0.3
건설업	-1.8	0.7	0.9	0.1	0.2	0.7
서비스업	1.5	1.2	0.4	0.2	0.4	0.0
민간소비	1.0	1.5	0.3	0.3	0.2	0.4
정부지출	2.8	1.6	-0.2	0.4	0.7	0.5
총고정자본형성	-2.0	4.4	2.7	-1.5	1.3	0.6
수출	1.0	2.2	2.4	-0.5	0.8	-0.4
수입	0.2	3.7	2.3	0.0	1.8	-0.2

주: 1)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10) 유로지역(Euroarea)은 국가통화로 유로(Euro)를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며, 2025년 9월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의 20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영국은 유로지역과 별도의 경제권임. 이하 본문에서 유럽의 경제동향은 유로지역과 영국의 경제동향을 각각 기술하며,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유로지역의 경제동향을 기술함.

표 3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

	2024년	2025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유로지역	0.8	1.5	0.6	0.1	0.3	0.2
독일	-0.5	0.2	0.4	-0.2	0.0	0.3
프랑스	1.2	0.8	0.1	0.3	0.5	0.2
이탈리아	0.8	0.5	0.3	0.0	0.2	0.3
스페인	3.5	2.8	0.5	0.7	0.6	0.8
영국	1.1	1.3	0.7	0.2	0.1	0.1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영국 통계청(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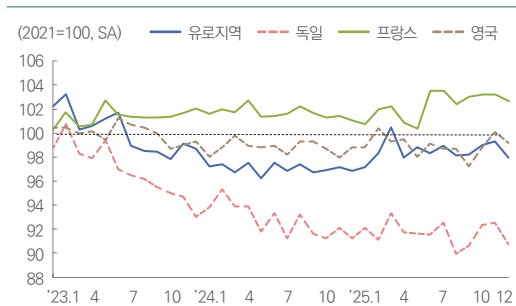
■ (생산) '25.12월 유로지역과 영국의 「생산」은 전월대비 모두 감소, 독일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유로지역 산업생산지수(2021=100): ('25.10월) 99.0 → (11월) 99.3 → (12월) 97.9
 - 산업생산지수 증감(전년동월대비, %): ('25.10월) 2.1 → (11월) 2.2 → (12월) 1.1
- 독일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감소
 - 독일 산업생산지수: ('25.10월) 92.3 → (11월) 92.5 → (12월) 90.7
- 프랑스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프랑스 산업생산지수: ('25.10월) 103.2 → (11월) 103.2 → (12월) 102.7
- 영국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영국 산업생산지수: ('25.10월) 98.8 → (11월) 100.1 → (12월) 99.2

■ (소비) '26.1월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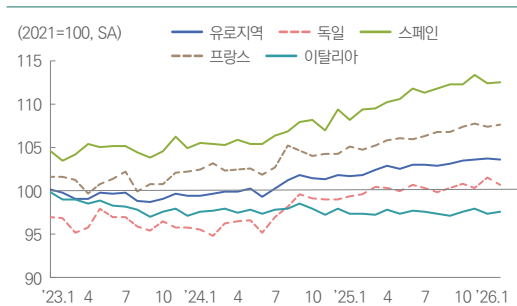
-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는 완만한 상승세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소폭 하락
 -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 ('25.11월) 103.7 → (12월) 103.8 → ('26.1월) 103.7
 - 전년동월대비 증감(%): ('25.11월) 2.3 → (12월) 3.9 → ('26.1월) 2.0
- 프랑스와 스페인은 소비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독일과 이탈리아는 더딘 모습
 - 프랑스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지수 증감(%): ('25.11월) 3.5 → (12월) 3.1 → ('26.1월) 2.6
 - 스페인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지수 증감(%): ('25.11월) 6.4 → (12월) 3.9 → ('26.1월) 4.4
 - 독일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지수 증감(%): ('25.11월) 1.3 → (12월) 2.5 → ('26.1월) 2.0
 - 이탈리아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지수 증감(%): ('25.11월) 0.7 → (12월) -0.5 → ('26.1월) 0.3

| 그림 11 | 산업생산지수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영국 통계청(ONS)

| 그림 12 | 소매판매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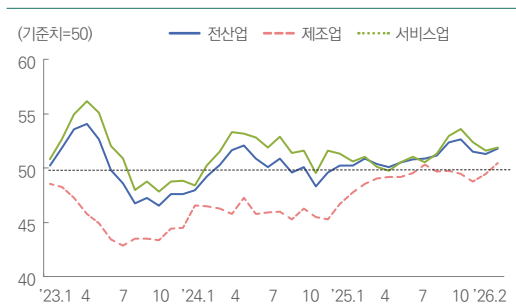


주: 자동차부문 제외.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 (구매관리자지수) '26.2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14개월 연속 기준치(5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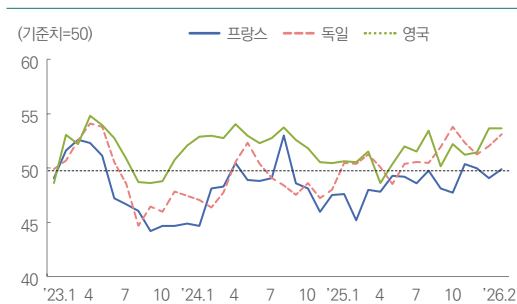
- '26.2월 유로지역 종합PMI(전산업)는 전월보다 0.5p 상승
 - 유로지역 종합PMI : ('25.12월) 51.5 → ('26.1월) 51.3 → (2월) 51.8
- 제조업(49.5 → 50.5) 및 서비스업(51.6 → 51.9) 모두 상승
 - '26년 들어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는 것을 반영
- 프랑스와 독일의 전산업 PMI는 전월대비 증가, 영국은 전월수준을 유지
 - 프랑스 전산업 PMI: ('25.12월) 50.0 → ('26.1월) 49.1 → (2월) 49.9
 - 독일 전산업 PMI: ('25.12월) 51.3 → ('26.1월) 52.1 → (2월) 53.2
 - 영국 전산업 PMI: ('25.12월) 51.4 → ('26.1월) 53.7 → (2월) 53.7

| 그림 13 |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



주: 50 이상은 경기 확장, 50 미만은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
자료: S&P Global

| 그림 14 | 국가별 전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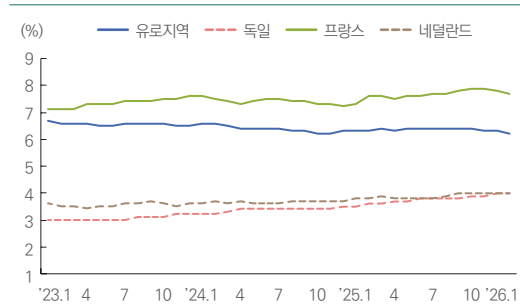


주: 50 이상은 경기 확장, 50 미만은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
자료: S&P Global

■ (노동시장) '26.1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전월대비 0.1%p 하락한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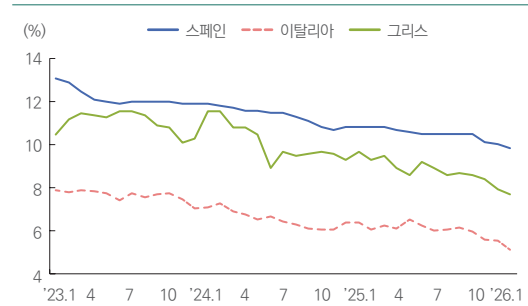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 제조업 업황이 개선된 프랑스의 실업률은 하락, 독일의 실업률은 상승
- 유로지역 실업률(%): ('25.11월) 6.3 → (12월) 6.3 → ('26.1월) 6.2
 - 유럽 중심국 실업률(%): 독일 ('25.11월) 3.9 → ('26.1월) 4.0, 프랑스 ('25.11월) 7.9 → ('26.1월) 7.7
 - 유럽 주변국 실업률(%): 스페인 ('25.11월) 10.1 → ('26.1월) 9.8, 그리스 ('25.11월) 8.4 → ('26.1월) 7.7

| 그림 15 | 유로지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실업률



주: 계절조정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 그림 16 |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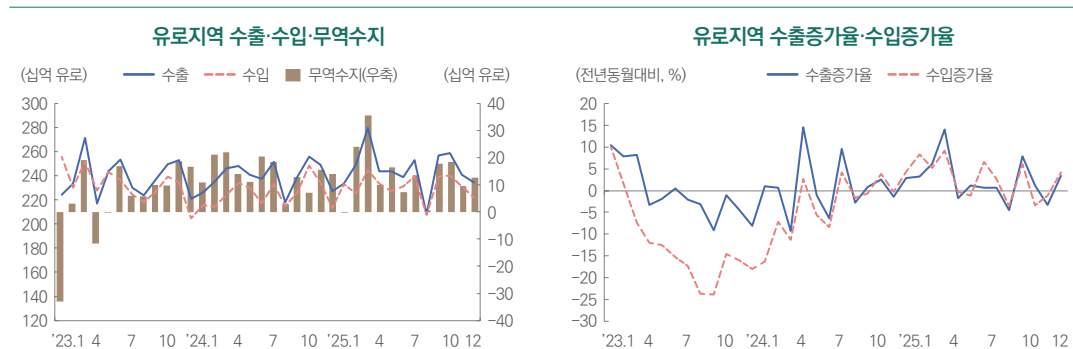


주: 계절조정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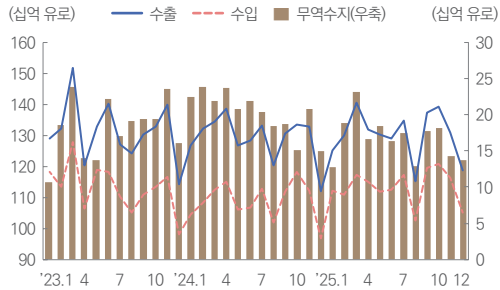
■ (교역) 유로지역 '25.12월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유로지역 역외수출(전년동월대비, %): ('25.10월) 1.2 → (11월) -3.4 → (12월) 3.4
- 유로지역 역외수입(전년동월대비, %): ('25.10월) -3.3 → (11월) -1.1 → (12월) 4.2
- 유로지역 무역수지(억 유로): ('25.10월) 18.3 → (11월) 9.3 → (12월) 12.6
 - 독일 수출은 6.1%, 수입은 8.4% 증가, 무역수지는 137억 유로 흑자 기록
 - 영국 수출은 0.3% 감소, 수입은 4.1% 증가, 무역수지는 43억 파운드 적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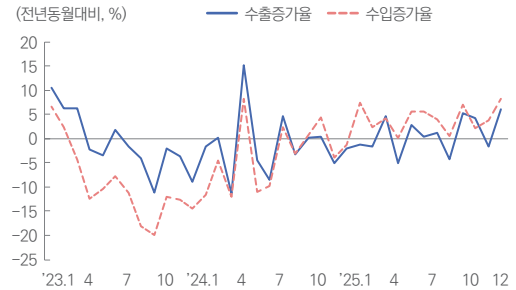
| 그림 17 | 유럽 주요국의 대(對) 세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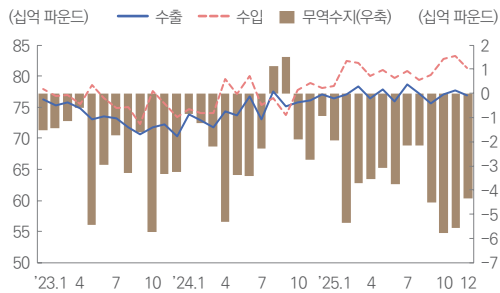
독일 수출·수입·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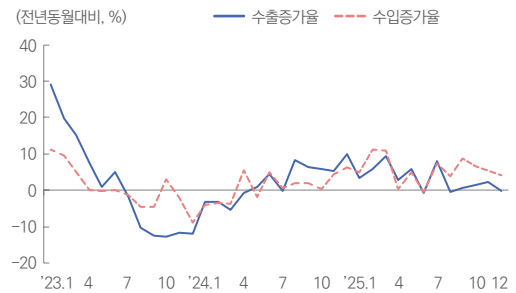
독일 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



영국 수출·수입·무역수지



영국 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



주: 유로지역 수출입은 역내교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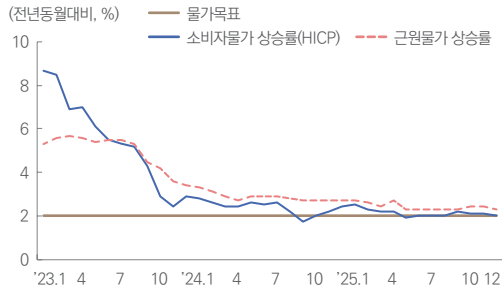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영국 통계청(ONS)

■ (물가) 유로지역 '25.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¹¹⁾」은 2.0%로 전월대비 0.1%p 하락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10월) 2.1 → (11월) 2.1 → (12월) 2.0
- 에너지 부문 물가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물가수준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산업재(에너지 제외) 물가 상승률(%): ('25.10월) 0.6 → (11월) 0.5 → (12월) 0.4
 - 식음료 물가 상승률(%): ('25.10월) 2.5 → (11월) 2.4 → (12월) 2.5
 - 에너지 물가 상승률(%): ('25.10월) -0.9 → (11월) -0.5 → (12월) -1.9
 - 부문별 기여도(%p): (식음료) 0.5 (산업재) 0.1 (에너지) -0.2 (서비스) 1.5
- 근원물가(전년동기대비, %): ('25.10월) 2.4 → (11월) 2.4 → (12월)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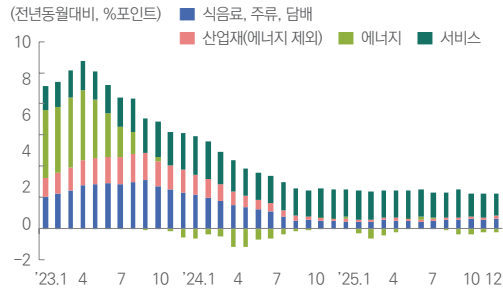
11)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물가통합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 HICP)를 사용하며, 유로지역 내 개별 국가들의 소비자물가를 종합하여 반영함.

| 그림 18 | 물가상승률 및 목표



주: 1) ECB의 물가상승률 목표
2) 소비자물가통합지수(HICP)
3) 근원물가(식품 및 에너지 제외한 HICP)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 그림 19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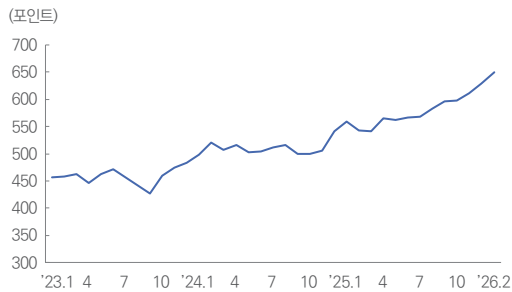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 (금융) 유로지역 '26.2월 「주가지수」는 상승, 「환율」, 「금리」는 하락

- (주가) '26.2월말 유로지역 주가지수(Eurostoxx)는 650.7p로 전월대비 21.4p 상승
- 주가지수(p): ('25.12월) 612.2 → ('26.1월) 629.3 → (2월) 650.7
- (금리) '26.2월말 독일 국채(10년물) 금리는 2.6%로 전월대비 0.2%p 하락
- 독일 국채 10년물(%): ('25.12월) 2.9 → ('26.1월) 2.8 → (2월) 2.6
- (환율) '26.2월말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1.181유로로 전월대비 1.0% 하락
- 환율(유로/달러): ('25.12월) 1.175 → ('26.1월) 1.192 → (2월) 1.181

| 그림 20 | 주가지수(Eurostoxx)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 그림 21 | 환율



주: 월말 기준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03 일본

I

세계경제 동향

II

주요 선진경제 동향

III

주요 신흥경제 동향

IV

대외경제 이슈

2025년 4분기 일본경제는 기업투자 개선 등으로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3% 증가

- 민간수요(0.4%)는 주택건설(4.9%)과 설비투자(1.3%)의 개선에 힘입어 전기대비 증가
- 공적수요(0.2%)는 정부소비지출(0.4%)의 개선으로 전기대비 증가
- 수출(-0.3%)과 수입(-0.3%)은 전기대비 소폭 감소
- 2025년 연간 실질GDP 증가율은 1.2%로 27년 만에 한국(1.0%, 잠정치)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표 4 | 국내총생산(지출항목별)

(단위: 전기대비, %)

	2024년	2025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국내총생산(GDP)	0.1	1.2	0.3	0.6	-0.7	0.3
국내수요	0.2	1.5	0.9	0.5	-0.4	0.3
민간수요	0.0	1.7	1.2	0.5	-0.4	0.4
민간소비지출	-0.1	1.5	0.7	0.2	0.5	0.3
주택건설	-2.3	-2.5	-0.2	0.0	-8.4	4.9
설비투자	1.2	1.9	0.5	1.2	-0.0	1.3
공적수요	0.5	0.8	-0.1	0.5	-0.1	0.2
정부소비지출	0.9	1.0	-0.2	0.7	0.1	0.4
공적고정자본형성	-0.9	-0.4	-0.1	0.2	-1.3	-0.5
수출	1.0	2.9	-0.2	1.9	-1.4	-0.3
수입	1.3	4.0	2.5	1.4	-0.1	-0.3

자료: 일본 내각부(C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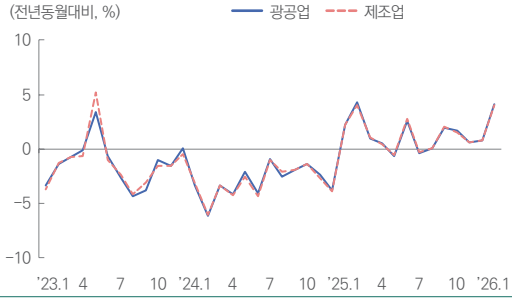
■ (생산) '26.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광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1월) 0.6 → (12월) 0.8 → ('26.1월) 4.1
 - 광업은 5.1% 감소, 제조업은 4.1% 증가

■ (소비) '26.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전월대비 12.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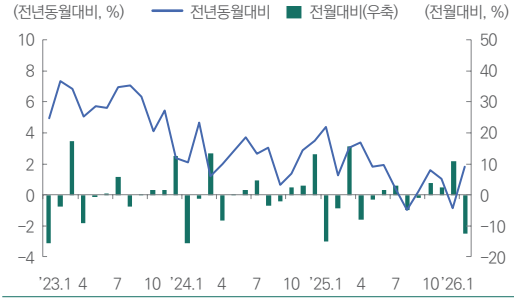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5.11월) 1.0 → (12월) 0.9 → ('26.1월) 1.8
- 소매판매(전월대비, %): ('25.11월) 2.4 → (12월) 11.0 → ('26.1월) -12.6

| 그림 22 | 광공업생산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 그림 23 | 소매판매 증감률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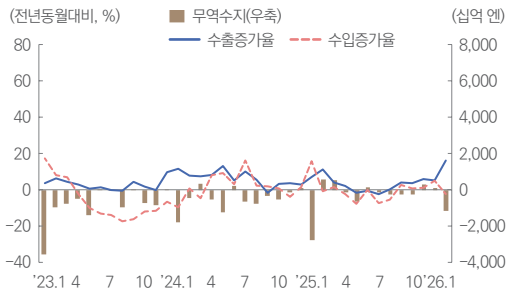
■ (교역) '26.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8% 증가, 「수입」은 2.4% 감소, 「무역수지」는 1조 1,635억 엔 적자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1월) 6.1 → (12월) 5.1 → ('26.1월) 16.8
- 수입(전년동월대비, %): ('25.11월) 1.4 → (12월) 5.2 → ('26.1월) -2.4
- 무역수지(억 엔): ('25.11월) 3,111 → (12월) 1,135 → ('26.1월) -11,635

■ (노동시장) '26.1월 「실업률」은 2.7%, 「고용률」은 61.9%

- 실업률(%): ('25.11월) 2.6 → (12월) 2.6 → ('26.1월) 2.7
- 고용률(%): ('25.11월) 62.5 → (12월) 62.4 → ('26.1월) 61.9

| 그림 24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일본 재무성(MOF)

| 그림 25 | 실업률¹⁾ 및 고용률²⁾



주: 1) 계절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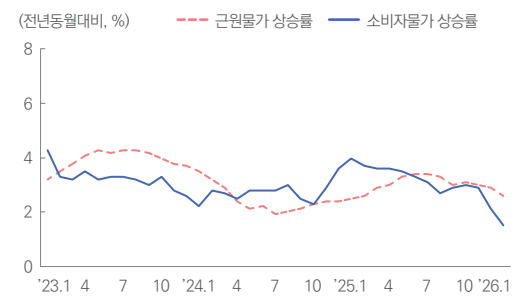
2)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자료: 일본 통계국(SBJ)

■ (물가) '26.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5%로 전월대비 0.6%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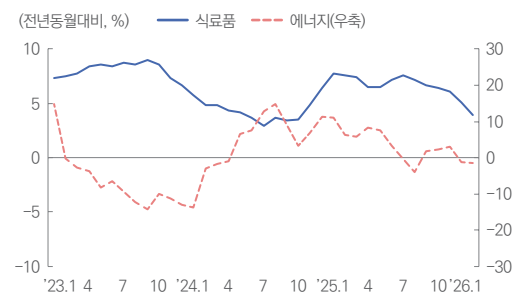
- (품목별) 식료품 가격의 상승률('25.12월 5.1% → '26.1월 3.9%)이 둔화되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률이 하락('25.12월 -1.3% → '26.1월 -1.5%)하여 물가상승률이 하락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1월) 2.9 → (12월) 2.1 → ('26.1월) 1.5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1월) 3.0 → (12월) 2.9 → ('26.1월) 2.6

| 그림 26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¹⁾ 상승률



주: 1) 신선식품, 에너지 제외 지수
자료: 일본 통계국(SBJ)

| 그림 27 |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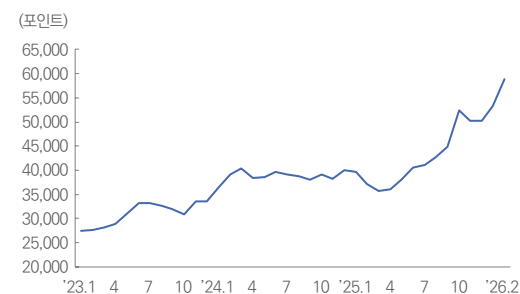


자료: 일본 통계국(SBJ)

■ (금융) '26.2월 「주가지수」와 「환율」은 전월대비 상승, 「금리」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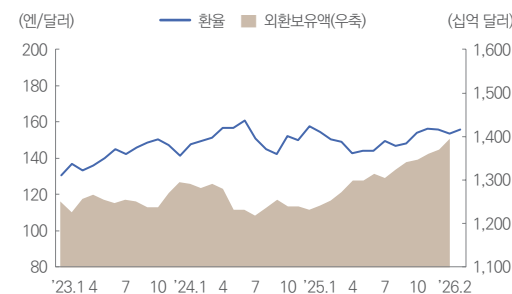
- (주가) 2월말 니케이지수는 58,850.3p로 전월말 대비 10.4% 상승
 - 주가지수(p): ('25.12월) 50,339.5 → ('26.1월) 53,322.9 → (2월) 58,850.3
- (금리) 2월말 국채(10년물) 금리는 2.11%로 전월대비 13bp 하락
 - 국채 10년물(%): ('25.12월) 2.06 → ('26.1월) 2.24 → (2월) 2.11
- (환율) 2월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56.1엔/달러로 전월대비 2.3엔 상승
 - 환율(엔/달러): ('25.12월) 156.0 → ('26.1월) 153.8 → (2월) 156.1

| 그림 28 | 주가지수(Nikkei)



주: 월말 기준
자료: 도쿄증권거래소(TSE)

| 그림 29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주: 월말 기준
자료: 일본은행(BOJ), IMF

III

요약

주요 신흥경제 동향

■ (중국)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둔화와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약화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5.2분기) 5.2 → (3분기) 4.8 → (4분기) 4.5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4.9 → (11월) 4.8 → (12월) 5.2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0월) -1.1 → (11월) 5.9 → (12월) 6.6
- 실업률(%): ('25.11월) 5.1 → (12월) 5.1 → ('26.1월) 5.2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1월) 0.7 → (12월) 0.8 → ('26.1월) 0.2

■ (브라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 정체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5.2분기) 2.4 → (3분기) 1.8 → (4분기) 1.8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0.5 → (11월) -1.2 → (12월) 0.4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1월) 23.4 → (12월) -3.1 → ('26.1월) 15.6
- 실업률(%): ('25.8월) 5.6 → ('25.11월) 5.2 → (12월) 5.1 → ('26.1월) 5.4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1월) 4.5 → (12월) 4.3 → ('26.1월) 4.4

■ (러시아) 제조업·건설업 생산 둔화와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 하락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5.1분기) 1.4 → (2분기) 1.1 → (3분기) 0.6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2.6 → (11월) 0.3 → (12월) 3.7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0월) -0.9 → (11월) -15.3 → (12월) 10.0
- 실업률(%): ('25.11월) 2.1 → (12월) 2.2 → ('26.1월) 2.2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1월) 9.0 → (12월) 8.7 → ('26.1월) 6.0

■ (인도)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5.2분기) 6.7 → (3분기) 8.4 → (4분기) 7.8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1월) 7.2 → (12월) 8.0 → ('26.1월) 4.8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1월) 19.0 → (12월) 1.8 → ('26.1월) 0.6
- 실업률(%): ('25.11월) 4.7 → (12월) 4.8 → ('26.1월) 5.0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0월) 0.3 → (11월) 0.7 → (12월) 1.3

■ (베트남) 내수와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며 견조한 성장세 지속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5.2분기) 8.2 → (3분기) 8.3 → (4분기) 8.5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1월) 9.1 → (12월) 10.1 → ('26.1월) 21.5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1월) 23.9 → (12월) 29.7 → ('26.1월) 5.8
- 실업률(%): ('25.2분기) 2.24 → (3분기) 2.22 → (4분기) 2.22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2월) 3.5 → ('26.1월) 2.5 → (2월) 3.4

01 중국

중국경제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둔화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약화

■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5% 성장(전기대비 1.2%)

- (산업별) 산업별로는 2차산업과 3차산업의 성장세는 약화되었으나, 1차산업의 성장세가 확대되었음
- (지출부문별) 성장기여율을 살펴보면 소비와 순수출이 4분기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가 전분기에 비해 다소 부진

표 1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²⁾ 국내총생산

(단위: %, %p)

	2024년	2025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국내총생산(GDP)	5.0	5.0	5.4	5.2	4.8	4.5
1차산업	3.5	3.9	3.5	3.8	4.0	4.2
2차산업	5.8	4.5	5.9	4.8	4.2	3.4
3차산업	5.0	5.4	5.3	5.7	5.4	5.2
최종소비지출	2.3	2.6	2.7	2.7	2.6	2.4
총자본형성	1.1	0.8	0.3	1.3	0.8	0.7
순수출	1.5	1.6	2.4	1.3	1.4	1.4

주: 1) 전년동기대비(%)

2) GDP 기여도(%p)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생산) '25.1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 광업은 5.4%, 제조업은 컴퓨터·통신·전자기기(16.8%) 등을 중심으로 5.7% 증가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4.9 → (11월) 4.8 → (12월) 5.2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4.9 → (11월) 4.6 → (12월)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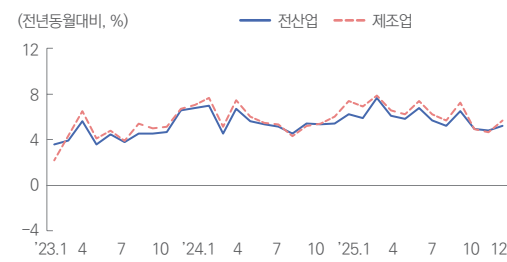
■ (경기) '25.2월 「구매관리자지수(PMI)」¹²⁾는 49.5로 전월대비 0.3p 하락

-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 ('25.12월) 50.7 → ('26.1월) 49.8 → (2월) 49.5

12)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50을 상회하면 경기확장, 50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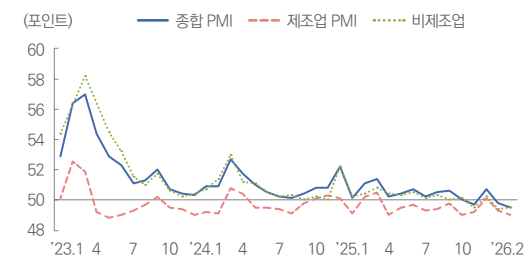
- (제조업) 2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전월대비 0.3p 하락하는 등 기준치(50)를 하회
 - (규모별) 대기업은 51.5로 전월대비 1.2p 상승하였으나 중기업(47.5)과 소기업(44.8)은 각각 전월대비 1.2p, 2.6p 하락
 - (업종별) 첨단기술 제조업은 51.5로 전월대비 0.5p 하락하였으며, 장비제조업은 49.8로 0.3p 하락
 - 제조업 PMI(지수): ('25.12월) 50.1 → ('26.1월) 49.3 → (2월) 49.0
- (비제조업) 2월 비제조업 PMI는 49.5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으나 기준치(50) 하회
 - 비제조업 PMI(지수): ('25.12월) 50.2 → ('26.1월) 49.4 → (2월) 49.5
 - 서비스업(1월 49.5 → 2월 49.7)은 상승하였으나, 건설업(48.8 → 48.2)은 하락

| 그림 1 | 산업생산 증감률



주: 춘절로 인해 1~2월은 누적치를 발표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Bloomberg

| 그림 2 | 구매관리자지수(PMI)



주: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위축을 의미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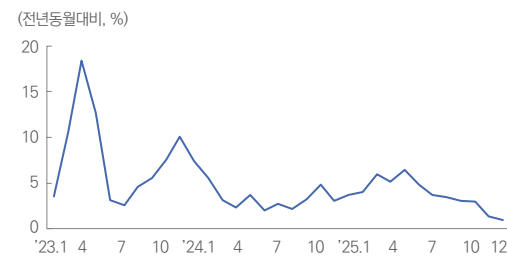
■ (소비) '25.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상품판매 증가세가 축소(11월 1.0% → 12월 0.7%)되고, 외식업(3.2% → 2.2%)도 둔화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5.10월) 2.9 → (11월) 1.3 → (12월) 0.9

■ (투자) '25.12월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는 전년동기대비 3.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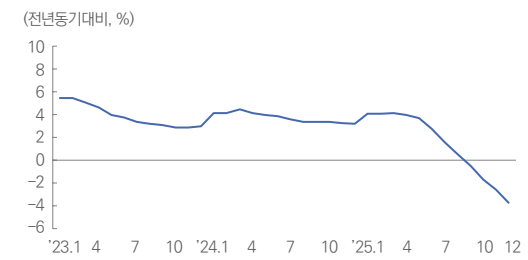
- 제조업투자(11월 1.9% → 12월 0.6%)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SOC투자(-1.1% → -2.2%)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부동산개발투자 부진은 지속(-15.9% → -17.2%)
-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 ('25.10월) -1.7 → (11월) -2.6 → (12월) -3.8

| 그림 3 | 소매판매 증감률



주: 춘절로 인해 1~2월은 누적치를 발표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그림 4 |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주: 누계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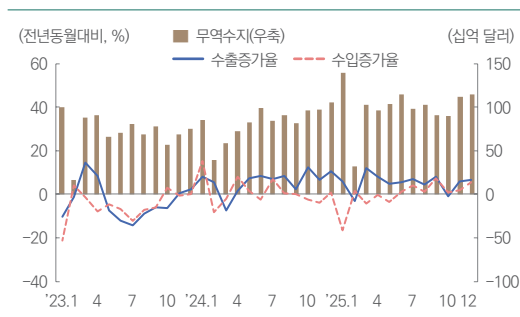
■ **(교역) '25.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6% 증가, 「수입」은 5.7% 증가, 「무역수지」는 1,141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0월) -1.1 → (11월) 5.9 → (12월) 6.6
 - 주요 품목별(전년동월대비, %): (반도체) 47.6 (유무선통신기기) 11.5 (자동차) 78.0
 - 주요 교역국(전년동월대비, %): (홍콩) 31.2 (미국) -30.0 (베트남) 20.5 (한국) -0.6 (일본) 5.3
- 수입(전년동월대비, %): ('25.10월) 1.0 → (11월) 1.9 → (12월) 5.7
- 무역수지(억 달러): ('25.10월) 901 → (11월) 1,117 → (12월) 1,141

■ **(노동시장) '26.1월 「실업률」은 5.2%로 전월대비 0.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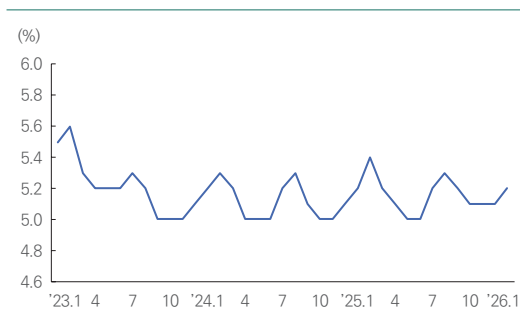
- 실업률(%): ('25.11월) 5.1 → (12월) 5.1 → ('26.1월) 5.2
- '25.1~11월 평균 신규취업자 수는 110.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만명(1.0%) 증가

| 그림 5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중국 해관총서(GAC)

| 그림 6 | 실업률



주: 전국 도시지역 실업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물가) '26.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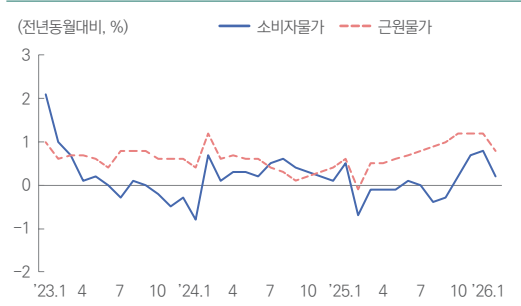
- (품목별) 식료품 가격('25.12월 0.8% → '26.1월 -0.2%)은 하락하였으나, 생활용품·서비스 가격(2.2% → 2.6%)은 상승폭 확대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1월) 0.7 → (12월) 0.8 → ('26.1월) 0.2
- 근원물가¹³⁾(전년동월대비, %): ('25.11월) 1.2 → (12월) 1.2 → ('26.1월) 0.8

■ **(주택가격) '26.1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3% 하락**

-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은 최근 하락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 70개 도시 중 상하이(4.2%), 항저우(2.4%) 등 5개 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하락세 지속
 - 7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2.8 → (12월) -3.0 → ('26.1월)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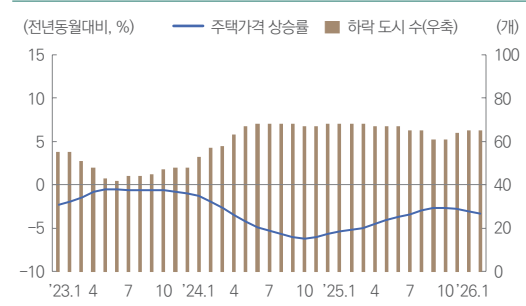
13) 식품, 에너지 제외 지수

| 그림 7 |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그림 8 | 7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¹⁾ 및 가격 하락 도시 수²⁾



주: 1) 주요 7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의 단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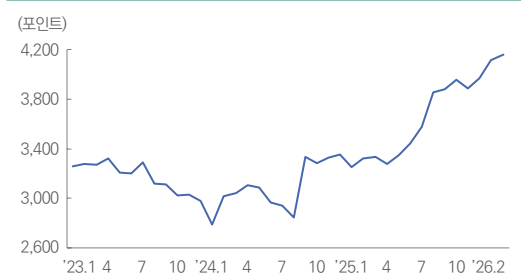
2) 주택가격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도시의 수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금요일) '26.2월 「주가지수」는 상승하고, 「금리」는 전월과 동일하며 「환율」은 하락

- (주가) 2월 상해종합지수는 4,163포인트로 전월대비 1.1% 상승
 - 주가지수(포인트): ('25.12월) 3,969 → ('26.1월) 4,118 → (2월) 4,163
- (금리) 2월 국채(10년물) 금리는 1.8%로 전월과 동일
 - (기준금리) 2/20일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1년물 3.0%, 5년물 3.5%로 동결
 - 국채 10년물(%): ('25.12월) 1.84 → ('26.1월) 1.81 → (2월) 1.81
- (환율) 2월 위안화 환율은 6.92 위안/달러로 전월대비 0.6% 하락
 - 환율(위안/달러): ('25.12월) 7.03 → ('26.1월) 6.97 → (2월) 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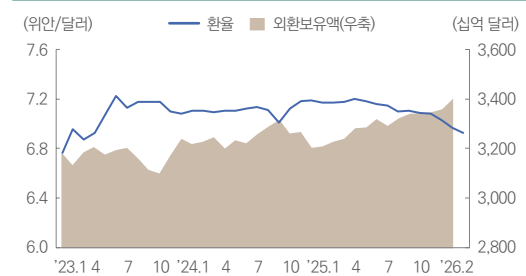
| 그림 9 | 주가지수(상해종합)



주: 월말자료

자료: 상하이 증권거래소(SSE)

| 그림 10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주: 월별자료

자료: 중국 인민은행(PBOC)

[BOX 2] 2026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방향

■ 중국은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경제성장률 목표(4.5~5.0%)를 제시

- 2026년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0%로 하향 조정
 - 소비자물가 상승률(2% 내외), 도시지역 실업률(5.5% 내외)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는 전년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로 유지, 일반공공예산 지출을 30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 (전년대비 1조 2,700억 위안 증가)

2026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목표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경제성장률	5.0% 내외	5.0%	5.0% 내외	5.0%	4.5~5.0%
재정적자 (GDP 대비)	3.0%	3.0%	4.0%	4.0%	4.0%
물가상승률	3.0% 내외	0.2%	2.0% 내외	0.1%	2.0% 내외
도시신규취업자수	1,200만명	1,260만명	1,200만명	1,267만명	1,200만명
도시지역 실업률	5.5% 내외	5.1%	5.5% 내외	5.2%	5.5% 내외

자료: 중국 국무원, CEIC

■ 내수 확대 정책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

-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대출금리 지원, 보증·신용확대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주요 소비재 보조금(가전·자동차 등) 확대, 사회보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여력을 확대
 - 이외에도 초장기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여 국가 전략 사업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디지털 경제 등 전략 산업을 육성바이오, 양자기술, 인공지능(AI), 6G 등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혁신기업 지원 강화
 - 또한 지능형 신에너지차, AI 스마트 단말기, 지능형 로봇 등 제조업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 확대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02 브라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을 정체

-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8% 성장(전기대비 0.3%)
 - (경제활동별) 농림어업(12.1%), 광업(12.0%) 및 서비스업(2.0%)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2.0%) 및 건설업(-2.9%)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 (지출항목별) 민간소비(1.0%), 정부지출(3.6%), 수출(14.2%)은 증가하였으나, 총고정자본형성(-3.1%) 및 수입(-0.3%)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표 2 |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국내총생산(GDP)	3.4	2.3	3.1	2.4	1.8	1.8
농림어업	-3.7	11.7	12.9	11.5	10.1	12.1
광업	0.5	8.6	1.2	8.8	11.9	12.0
제조업	3.9	-0.2	2.5	-0.2	-0.6	-2.0
건설업	4.4	0.5	3.0	0.2	2.0	-2.9
서비스업	3.8	1.8	2.1	1.9	1.3	2.0
민간소비	5.1	1.3	2.2	1.8	0.4	1.0
정부지출	2.0	2.1	2.0	0.9	1.8	3.6
총고정자본형성	6.9	2.9	9.0	4.1	2.3	-3.1
수출	2.8	6.2	1.2	2.1	7.2	14.2
수입	15.6	4.5	13.3	3.9	2.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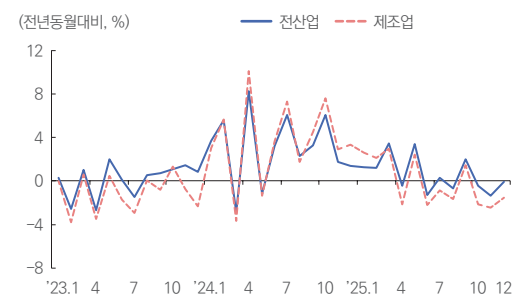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브라질 중앙은행(BCB)

- (생산) '25.1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광업은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자본재(-7.5%)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0.5 → (11월) -1.2 → (12월) 0.4

■ (소비) '25.12월 「소매판매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전월대비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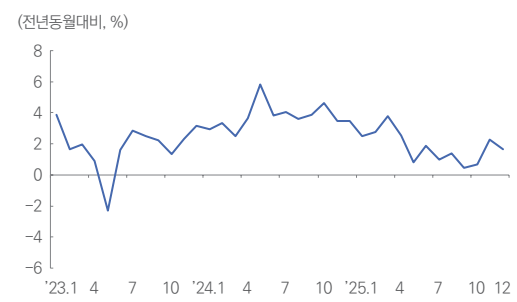
- (상품군별) 의약품·화장품(5.7%), 가구·가전(4.5%), 연료·윤활유(1.9%), 슈퍼마켓(0.9%), 음료(0.7%), 서적(-1.5%), 의복·신발(-3.4%)
- 소매판매지수(전년동월대비, %): ('25.10월) 0.6 → (11월) 2.3 → (12월) 1.6

| 그림 11 |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 그림 12 | 소매판매지수 증감률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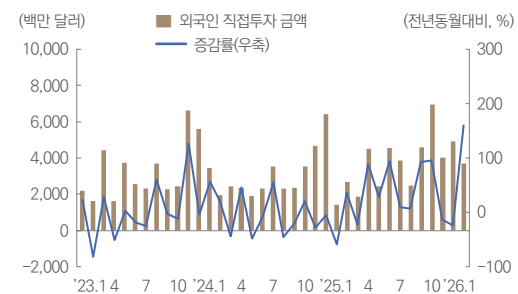
■ (투자) '26.1월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61.1%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월대비, %): ('25.11월) -14.1 → (12월) -23.7 → ('26.1월) 161.1

■ (교역) '26.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6% 증가, 「수입」은 4.8% 감소, 「무역수지」는 42.1억 달러 흑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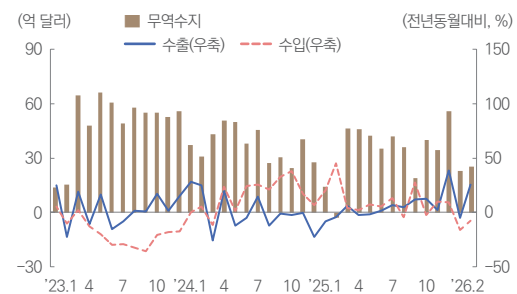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2월) 23.4 → ('26.1월) -3.1 → (2월) 15.6
 - 주요 품목별(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 (원유) 74.0 (철광석) 36.4 (커피) 52.9
 - 주요 교역국(1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 (중국) 39.1 (미국) -6.6 (아르헨티나) -19.6
- 수입(전년동월대비, %): ('25.12월) 5.6 → ('26.1월) -9.8 → (2월) -4.8
- 무역수지(억 달러): ('25.12월) 93.2 → ('26.1월) 38.2 → (2월) 42.1

| 그림 13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자료: CEIC

| 그림 14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브라질 경제부(MOE)

■ (노동시장) '26.1월 「실업률」은 5.4%로 전월(5.1%) 대비 상승

- 실업률(%): ('25.11월) 5.2 → (12월) 5.1 → ('26.1월) 5.4
- '25.1월~12월(누적) 신규 일자리 수는 126만 개로 전년동기대비 25.0% 감소

| 그림 15 | 실업률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 그림 16 | 신규 일자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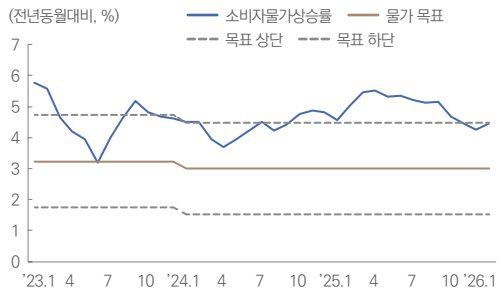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Labor

■ (물가) '26.1월 「소비자물가(IPCA¹⁴)」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4%로 전월(4.3%) 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11월) 4.5 → (12월) 4.3 → ('26.1월) 4.4
 - 부문별 기여도(%p): (주거) 1.6 (의료) 0.8 (식음료) 0.5
 - 브라질의 소비자물가상승률(IPCA)은 브라질 중앙은행(BCB)의 목표치인 3%를 상회하고 있으나 허용범위 내에 있음(허용범위 ±1.5%포인트)

| 그림 17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물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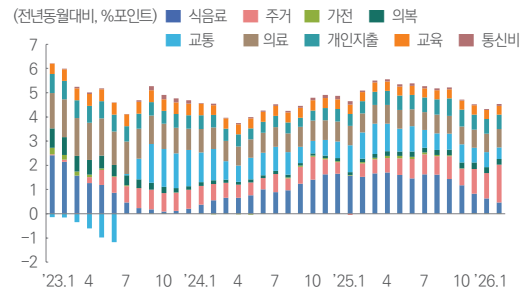


주: 1) 전국 소비자물가지수(IPCA)

2) 점선은 목표 상단 및 하단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브라질지리통계연구소(IBGE)

| 그림 18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14) 전국 소비자물가지수(Índice Nacional de Preços ao Consumidor Amplo, IPCA)

■ (금융) '26.2월 「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금리」와 「환율」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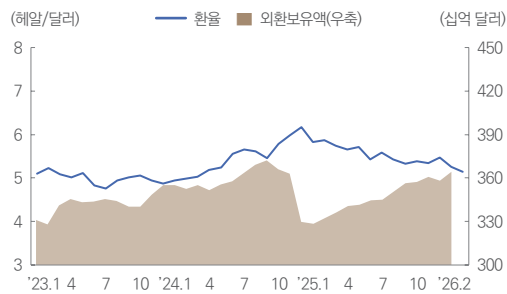
- (주가) '26.2월 보베스파(Bovespa)지수는 188,786포인트로 전월대비 4.1% 상승
 - 주가지수(포인트): ('25.12월) 161,125 → ('26.1월) 181,363 → (2월) 188,786
- (금리) '26.2월 브라질 국채(10년물) 금리는 13.6%로 전월대비 0.04%p 하락
 - (기준금리)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24년 9월 이후 일곱 차례(9월 25bp, 11월 50bp, 12월 100bp, '25.1월 100bp, 3월 100bp, 5월 50bp, 6월 25bp)에 걸쳐 기준금리(Selic)를 15.0% 까지 인상
 - 국채 10년물(%): ('25.12월) 13.7 → ('26.1월) 13.6 → (2월) 13.6
- (환율) '26.2월 달러 대비 헤알화의 환율은 전월대비 2.1% 하락
 - 환율(헤알/달러): ('25.12월) 5.48 → ('26.1월) 5.25 → (2월) 5.14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25.11월) 360.6 → (12월) 358.2 → ('26.1월) 364.4

| 그림 19 | 주가지수(Bovespa)



자료: 브라질 증권거래소(BOVESPA)

| 그림 20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IMF

03 러시아

제조업·건설업 생산 둔화와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을 하락

■ 2025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6% 증가

- (경제활동별) 농림어업(3.0%), 제조업(1.4%), 건설업(1.4%), 서비스업(1.3%)은 증가하였으나, 광업(-0.7%)은 감소
- (지출항목별) 민간소비(3.3%), 정부지출(1.8%)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총고정자본형성(-1.1%)은 감소

표 3 |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연간	1Q	2Q	3Q	4Q	1Q	2Q	3Q
국내총생산(GDP)	4.3	5.4	4.3	3.3	4.5	1.4	1.1	0.6
농림어업	-3.4	1.2	0.9	-3.0	-8.9	1.1	0.8	3.0
광업	-0.9	0.5	-1.7	-1.6	-0.9	-4.0	-1.2	-0.7
제조업	7.6	8.3	7.5	5.2	9.5	4.5	3.8	1.4
건설업	4.2	7.6	4.8	3.4	2.9	7.3	2.7	1.4
서비스업	5.4	6.0	5.8	4.7	5.3	3.0	1.8	1.3
민간소비	5.4	7.0	5.3	5.1	4.3	3.0	3.2	3.3
정부지출	4.8	4.6	5.3	4.8	4.5	1.4	0.6	1.8
총고정자본형성	6.0	9.4	3.9	7.9	4.5	8.5	1.0	-1.1
수출	2.1	-2.3	2.9	0.0	7.7	-5.1	-6.4	-0.7
수입	-0.5	-10.2	-7.7	3.9	12.0	-1.0	4.7	-3.5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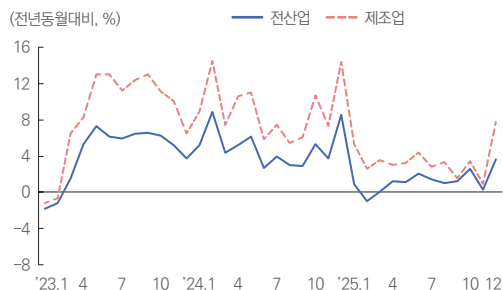
■ (생산) '25.12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 2.6 → (11월) 0.3 → (12월) 3.7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7.7% 증가

■ (소비) '26.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5.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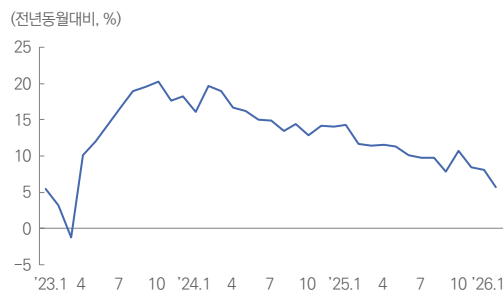
- 소매판매액(전년동월대비, %): ('25.11월) 9.8 → (12월) 7.9 → ('26.1월) 5.6

| 그림 21 |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 그림 22 | 소매판매 증감률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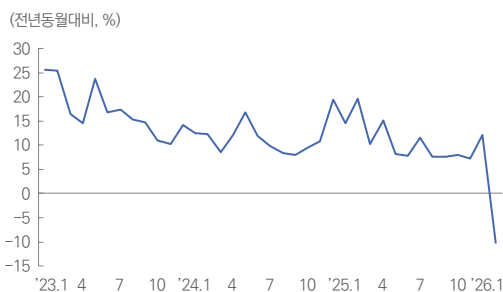
■ (건설) '26.1월 「건설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10.3% 감소

- 건설 생산량(전년동월대비, %): ('25.11월) 7.3 → (12월) 12.0 → ('26.1월) -10.3

■ (교역) '25.12월 「수출」은 435억 달러(전년동월대비 10.0%), 「수입」은 335억 달러(전년동월대비 14.0%)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흑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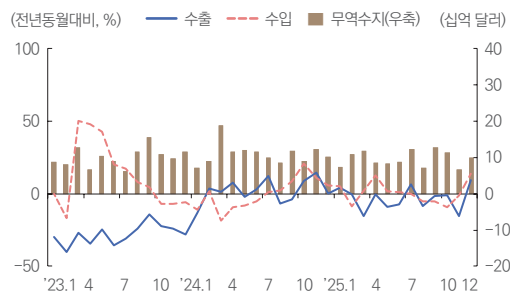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0월) -0.9 → (11월) -15.3 → (12월) 10.0
- 수입(전년동월대비, %): ('25.10월) -9.3 → (11월) -1.6 → (12월) 14.0
- 무역수지(억 달러): ('25.10월) 114 → (11월) 67 → (12월) 100

| 그림 23 | 건설생산 증감률



자료: CEIC

| 그림 24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러시아 중앙은행(C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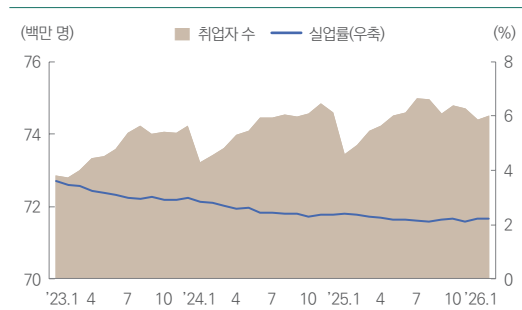
■ (노동시장) '26.1월 「실업률」은 2.2%로 전월 수준 유지

- 실업률(%): ('25.11월) 2.1 → (12월) 2.2 → ('26.1월) 2.2
- '26.1월 취업자 수는 7,45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4만 명 증가

■ (물가) '26.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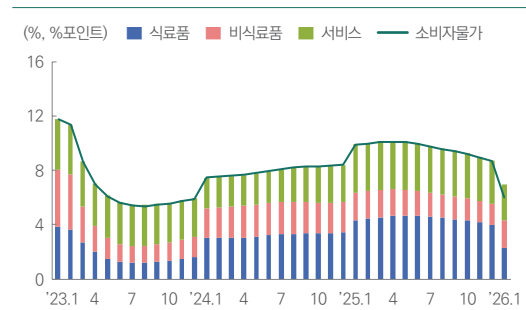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1월) 9.0 → (12월) 8.7 → ('26.1월) 6.0
- 부문별(전년동월대비, %): (식료품) 5.9 (비식료품) 6.1 (서비스) 9.6

| 그림 25 | 취업자 수 및 실업률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 그림 26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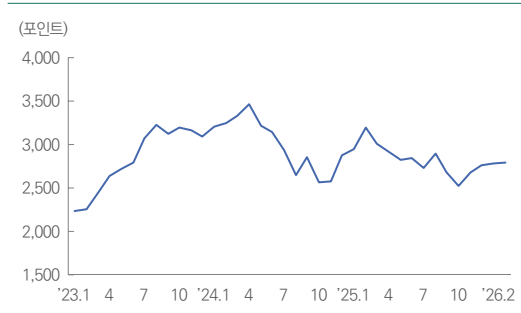
■ (경기) '26.1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월 대비 상승

- 「제조업 PMI」는 전월 48.1에서 49.4로 상승
- 「서비스업 PMI」는 전월 52.3에서 53.1로 상승

■ (금융) '26.2월 「주가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금리」, 「환율」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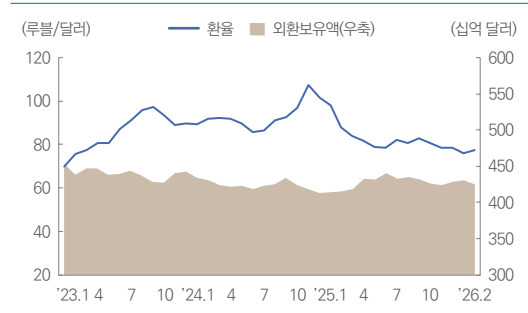
- (주가) '26.2월 러시아 주가지수(MOEX)는 2,799 포인트로 전월대비 1.0% 상승
 - 주가지수(포인트): ('25.12월) 2,766 → ('26.1월) 2,782 → (2월) 2,799
- (금리) '26.2월 러시아 국채(10년물) 금리는 14.3%로 전월대비 0.3%p 하락
 - (기준금리) 러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21.0%까지 인상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경기 둔화 우려로 2025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26.2월 기준금리 16.0%)
 - 국채 10년물(%): ('25.12월) 14.4 → ('26.1월) 14.6 → (2월) 14.3
- (환율) '26.2월 미 달러 대비 루블화의 환율은 77.3루블로 전월대비 2.0% 하락
 - 환율(루블/달러): ('25.12월) 78.2 → ('26.1월) 75.7 → (2월) 77.3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25.12월) 428 → ('26.1월) 431 → (2월) 725

| 그림 27 | 주가지수(MOEX)



자료: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

| 그림 28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CBR)

I

세계경제 동향

II

주요 선진경제 동향

III

주요 신흥경제 동향

IV

대외경제 이슈

04 인도

인도경제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8% 성장

- (경제활동별) 농업(1.4%)과 광업(4.7%)의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제조업(13.3%), 서비스업(9.5%)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 지속
- (지출항목별) 민간소비(8.7%)의 증가세는 확대되었으나, 정부지출(4.7%), 투자(7.8%), 수출(5.6%)의 증가세는 둔화

표 4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²⁾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25년	2025/26년	2025년			
	연간 ³⁾	연간 ³⁾	1Q	2Q	3Q	4Q
국내총생산(GDP)	7.1	7.6	7.0	6.7	8.4	7.8
농림어업	4.2	2.4	3.8	4.2	2.3	1.4
광업	11.7	4.1	12.9	4.5	6.1	4.7
제조업	9.3	11.5	11.8	10.6	13.2	13.3
건설업	7.3	7.1	8.0	5.4	8.7	6.6
서비스업	7.9	9.0	6.8	7.8	9.3	9.5
민간소비	5.8	7.7	5.6	9.2	8.0	8.7
정부지출	6.5	6.6	3.6	5.8	6.6	4.7
총고정자본형성	6.4	7.1	6.2	4.9	8.4	7.8
수출	6.6	6.5	5.4	6.6	10.2	5.6
수입	5.3	6.4	5.5	7.4	5.9	8.6

주: 1)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2) 2022/23년 기준가격

3) 연간자료는 회계 연도(fiscal year) 기준으로 2024/25년은 2024년 4월~2025년 3월을 나타냄

4) 분기별 자료는 달력 연도(calendar year) 기준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생산) '26.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 광업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18.0%), 1차금속(13.2%), 운송장비(10.9%) 등을 중심으로 4.8% 증가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1월) 7.2 → (12월) 8.0 → ('26.1월) 4.8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1월) 8.5 → (12월) 8.4 → ('26.1월) 4.8

■ (소비) '26.1월 「국내 승용차 판매량」¹⁵⁾은 45만대로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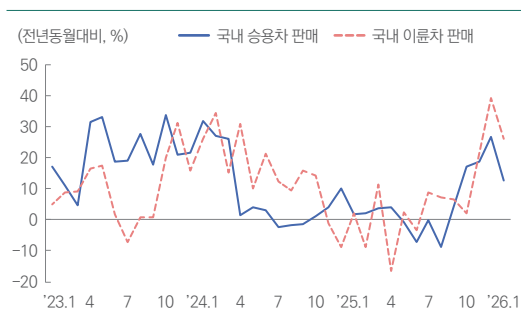
- 1월 국내 이륜차 판매량은 193만대로 전년동월대비 26.2% 증가
 - 국내 승용차 판매(전년동월대비, %): ('25.11월) 18.7 → (12월) 26.8 → ('26.1월) 12.6
 - 국내 이륜차 판매(전년동월대비, %): ('25.11월) 21.2 → (12월) 39.4 → ('26.1월) 26.2
- (소비심리) '26.1월 「소비자신뢰지수」¹⁶⁾는 98.1로 전기대비 0.3p 하락
 - 소비자신뢰지수(기준=100): ('25.9월) 96.9 → (11월) 98.4 → ('26.1월) 98.1

| 그림 29 |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그림 30 | 차량 판매 증감률



자료: 인도 자동차공업협회(SIAM)

■ (투자) '25.12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8.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

- 외국인 직접투자(억 달러): ('25.10월) 6.5 → (11월) 6.4 → (12월) 8.6
 - 국가별(12월 기준, 억 달러): (싱가포르) 57 (일본) 20 (모리셔스) 14 (미국) 12 (네덜란드) 7

■ (교역) '26.1월 「수출」은 366억 달러(전년동월대비 0.6%), 「수입」은 712억 달러(19.2%)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347억 달러 적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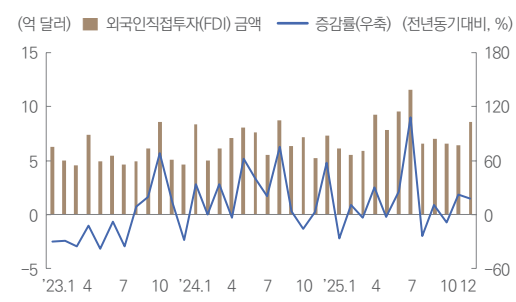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1월) 19.0 → (12월) 1.8 → ('26.1월) 0.6
 - 주요 품목별(전년동월대비, %): (기계) 10.4 (전자제품) 0.3 (석유) 8.5
 - 주요 교역국(전년동월대비, %): (미국) -21.8 (UAE) 29.3 (중국) 55.7 (네덜란드) 20.5

15) 인도는 소매판매 지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의 민간 소비를 평가할 때 자동차 판매량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인도 자동차 판매시장에서는 승용차(passenger vehicles)보다 이륜차(two wheelers) 판매 비중이 높음.

16) 인도중앙은행의 격월마다 실시한 소비자신뢰조사(Consumer Confidence Survey) 결과 인도의 현재상황지수(Current Situation Index)로 100을 상회(하회)하면 경제상황이 개선(악화)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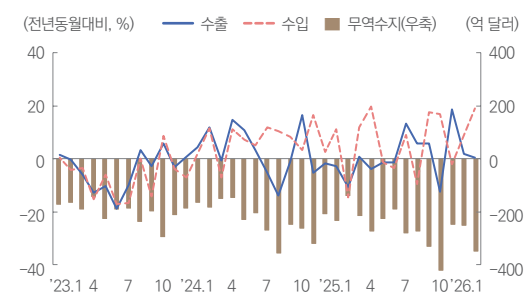
- 수입(전년동월대비, %): ('25.11월) -1.9 → (12월) 8.7 → ('26.1월) 19.2
- 무역수지(억 달러): ('25.11월) -247 → (12월) -251 → ('26.1월) -347

| 그림 31 | FDI 유입액 및 증감률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 그림 32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인도 상공부(M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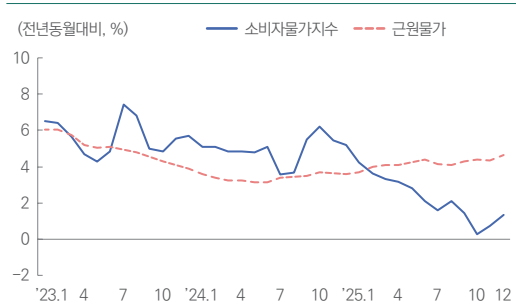
■ '26.1월 「실업률」은 5.0%로 전월대비 0.2%p 상승

-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4.7%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18.6%, 농촌지역 12.8%를 기록
- (경제활동참가율) '26.1월 기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9%이며, 도시지역은 50.3%, 농촌지역은 58.7%를 기록
 - 실업률(%): ('25.11월) 4.7 → (12월) 4.8 → ('26.1월) 5.0
 - 청년층 실업률(%): ('25.11월) 14.1 → (12월) 14.4 → ('26.1월) 14.7
 - 경제활동참가율(%): ('25.11월) 55.8 → (12월) 56.1 → ('26.1월) 55.9

■ 25.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며 전월(0.7%) 대비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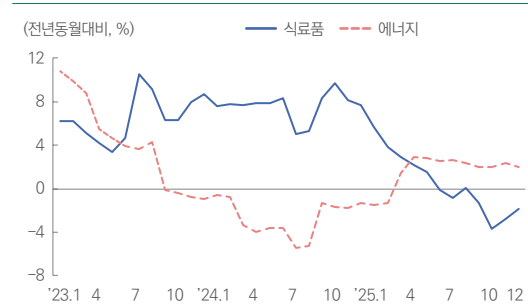
- (품목별) 식료품 가격은 1.8% 감소하였으나, 에너지 가격은 2.0% 상승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26.12월 4.3%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0월) 0.3 → (11월) 0.7 → (12월) 1.3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0월) 4.4 → (11월) 4.3 → (12월) 4.6

| 그림 33 |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그림 34 |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금융) '26.2월 「주가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 「금리」는 전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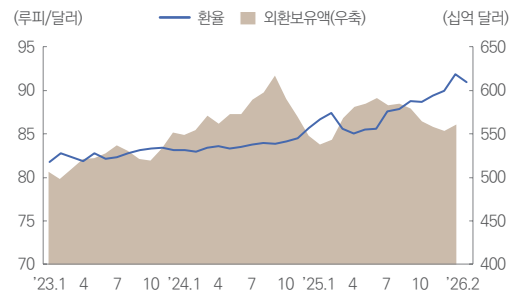
- (주가) 2월 인도 주가지수는 81,287포인트로 전월대비 1.2% 하락
 - 주가지수(포인트): ('25.12월) 85,221 → ('26.1월) 82,270 → (2월) 81,287
- (금리) 2월 인도 국채(10년물) 금리는 6.7%로 전월과 동일
 - (기준금리) 인도 중앙은행은 '25.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로 25bp 인하한 이후 '26.2월 회의에서는 이를 동결
 - 국채 10년물(%): ('25.12월) 6.6 → ('26.1월) 6.7 → (2월) 6.7
- (환율) 2월 미 달러 대비 루피화의 환율은 91.0루피로 전월대비 1.0% 하락
 - 환율(루피/달러): ('25.12월) 89.9 → ('26.1월) 91.9 → (2월) 91.0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25.11월) 557.8 → (12월) 552.9 → ('26.1월) 560.9

| 그림 35 | 주가지수(SENSEX)



자료: 인도 봄베이 증권거래소(BSE)

| 그림 36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자료: 인도 중앙은행(RBI)

05 베트남

베트남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며 견조한 성장세 지속

■ 2025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8.5%(전년동기대비) 성장

- (경제활동별) 광업(4.8%)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제조업(10.6%)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 지속
- (지출항목별) 소비(8.0%), 투자(8.7%)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출(16.3%)이 성장을 견인

표 5 |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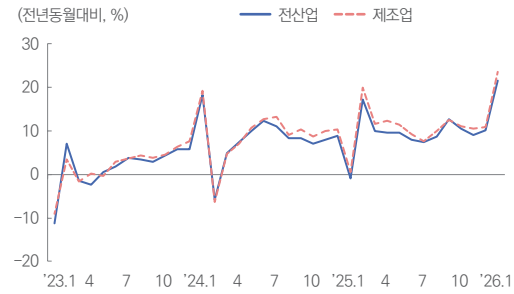
	2024년	2025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국내총생산(GDP)	7.0	8.0	7.0	8.2	8.3	8.5
농림어업	3.6	3.8	3.8	4.0	3.7	3.7
광업	-7.5	0.4	-6.1	-2.4	6.8	4.8
제조업	9.6	10.0	9.3	10.2	9.6	10.6
건설업	7.6	9.6	9.3	10.9	9.2	9.2
서비스업	7.4	8.6	7.8	9.0	8.7	8.8
최종소비	6.6	8.0	7.5	8.0	8.1	8.0
총고정자본형성	7.2	8.7	7.2	8.0	8.5	8.7
수출	16.3	16.3	9.7	14.2	15.5	16.3
수입	19.2	17.1	12.5	16.0	16.8	17.1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생산) '26.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5% 상승(전월대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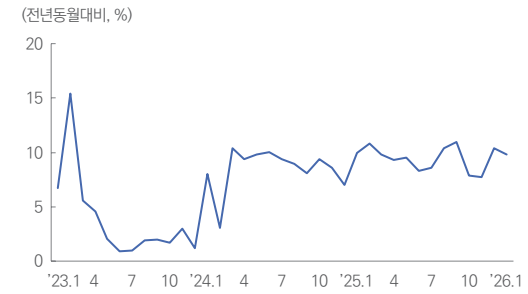
- 1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6% 증가(전월대비 -3.7%)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1월) 9.1 → (12월) 10.1 → ('26.1월) 21.5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1월) 10.5 → (12월) 10.9 → ('26.1월) 23.6
 - 업종별(전년동월대비, %): (광업) 10.3 (제조업) 23.6 (발전) 14.1 (상하수·폐기물) 13.6

| 그림 37 |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그림 38 | 소매판매 증감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소비) '26.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9.8% 증가(전월대비 2.6%)

- 상품 소매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설 연휴 영향으로 관광·숙박 등서비스 매출도 확대
 - 부문별(전년동월대비, %): (재화) 9.3 (숙박·음식) 14.5 (관광) 6.1 (기타) 8.9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5.11월) 7.7 → (12월) 10.4 → ('26.1월)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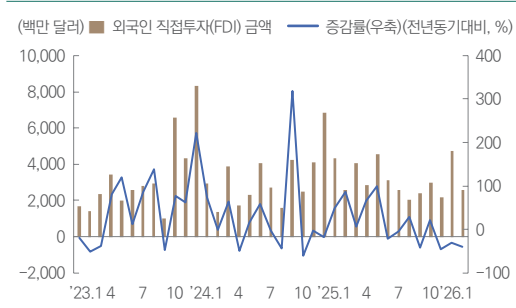
■ (투자) '26.2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누계)은 60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6% 감소

- 전체 FDI 유치액 가운데 신규 투자사업은 62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0.2% 증가하였으며 규모는 35억 4천만 달러로 61.5% 증가
 - 국가별(억 달러): (한국) 13.4 (싱가포르) 11 (중국) 5.2 (일본) 1.7 (홍콩) 1.4

■ (교역) '26.1월 「수출」은 331억 달러(전년동월대비 5.8%), 「수입」은 341억 달러(4.4%)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10억 달러 적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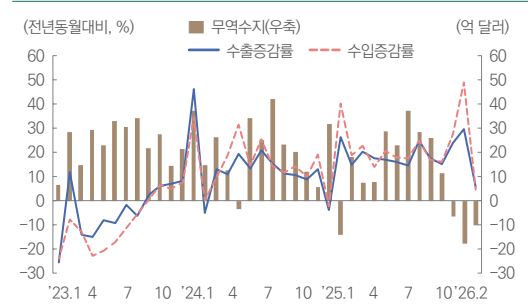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1월) 23.9 → (12월) 29.7 → ('26.1월) 5.8
 - 주요 품목별(전년동월대비, %): (컴퓨터·전자기기) 57.6 (휴대전화) 17.3 (기계) 40.2
 - 주요 교역국(전년동월대비, %): (미국) 32.5 (중국) 70.8 (한국) 17.9 (일본) 17.8
- 수입(전년동월대비, %): ('25.11월) 27.7 → (12월) 49.2 → ('26.1월) 4.4
- 무역수지(억 달러): ('25.11월) -6 → (12월) -18 → ('26.1월) -10

| 그림 39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그림 40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노동시장) 2025년 4분기 「실업률」은 2.22%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

- 15~24세 청년 실업률은 9.04%로 전기대비 0.06%p 상승하였으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니트, NEET¹⁷⁾)의 수는 140만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10%를 차지
 - 실업률(%): ('25.2분기) 2.24 → (3분기) 2.22 → (4분기) 2.22

■ (물가) '26.2월 「소비자물가(CPI)」는 전년동월대비 3.4% 상승(전월대비 1.1%)

- 2월 소비자물가는 설(Tet) 연휴로 인한 식품가격 오름세 영향으로 상승
 - 품목별¹⁸⁾ (전년동월대비, %): (식품) 5.3 (주택·건축) 5.6 (교통) -3.2 (보건·의료) 0.7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2월) 3.5 → ('26.1월) 2.5 → (2월) 3.4
 - 근원물가¹⁹⁾ (전년동월대비, %): ('25.12월) 3.3 → ('26.1월) 3.2 → (2월)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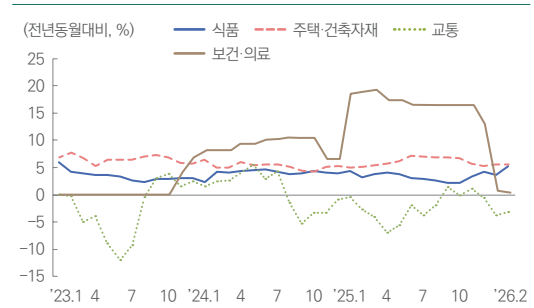
| 그림 41 |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물가목표는 연간 %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중앙은행(SBV)

| 그림 42 |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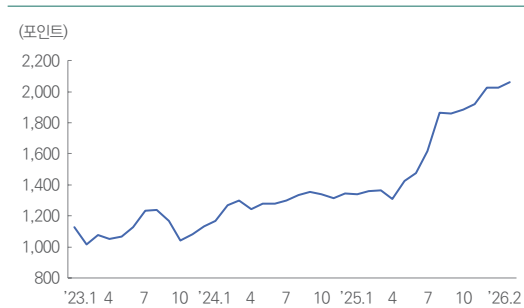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17)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 취업, 직업훈련 등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층을 의미
 18) 소비자물가 11개 구성항목의 가중치('26.2월 기준, %): (식품) 35.8 (주택·건축자재) 22.7 (교통) 10.0 (교육) 6.0 (가정용품) 5.1 (보건·의료) 4.7 (우편·통신) 3.7 (기타) 3.6 (의복) 3.5 (문화·관광) 3.1 (주류·담배) 1.8
 19) 식품, 에너지, 국가가 관리하는 품목(의료·교육비 등)을 제외한 물가

■ (금융) '26.2월 「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하고 「금리」는 전월과 동일하며, 「환율」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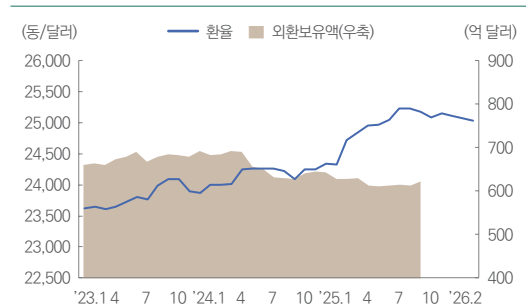
- (주가) 2월 베트남 주가지수는 2,062포인트로 전월대비 1.6% 상승
 - 주가지수(포인트): ('25.12월) 2,031 → ('26.1월) 2,030 → (2월) 2,062
- (금리) 2월 베트남 국채(10년물) 금리는 4.1%로 전월과 동일
 - 국채 10년물(%): ('25.12월) 4.0 → ('26.1월) 4.1 → (2월) 4.1
- (환율) 2월 미 달러 대비 동화의 환율은 25,044동으로 전월대비 0.1% 하락
 - 환율(동/달러): ('25.12월) 25,121 → ('26.1월) 25,074 → (2월) 25,044
 - 외환보유액(억 달러): ('25.7월) 615 → (8월) 613 → (9월) 623

| 그림 43 | 주가지수(VN30)



자료: CEIC

| 그림 44 | 환율 및 외환보유액¹⁾



주: 1) 2025년 9월까지 가용

자료: 베트남 중앙은행(SBV), IMF

IV

대외경제 이슈

주요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추진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 이슈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대외경제 이슈

주요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추진 현황과 시사점

경제분석총괄과 강은정 경제분석관

1 검토배경

-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UN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의 약 5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약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기존의 지상교통 중심의 수송체계만으로는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음²⁰⁾
-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수송부문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한 상황

- 도심 내 3차원 항공 교통망을 구축하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핵심 기체인 전기수직이착륙기(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²¹⁾는 활주로나 필요 없고 배출가스가 없어 도심형 친환경 항공교통 수단으로 활용 가능
- UAM은 단순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넘어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막대한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 산업이자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도 부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국은 UAM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주요국의 UAM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미국은 미래 항공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UAM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개별국가의 정책지원과 함께 EU 차원의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중국은 UAM 보다 확장된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 이에 따라 주요국의 추진 현황과 정책·규제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

20) United Nations(2025),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25"

21)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은 전기 동력원을 사용해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수평으로 나는 전기 수직이착륙기

2 도심항공교통(UAM)의 개념 및 현황

가. 도심항공교통(UAM)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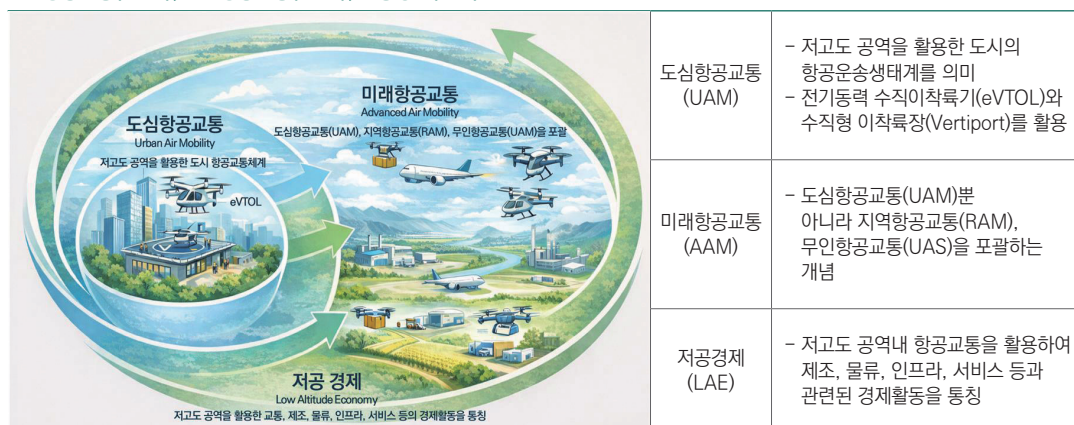
■ 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 내 저고도 공역을 활용하는 차세대 친환경 항공교통체계

- 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하고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등을 이용하여 승객이나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해서 운용하는 항공체계 기반 모빌리티를 의미²²⁾

■ 도심항공교통(UAM)의 확장된 개념으로 미래항공교통(AAM), 저공경제(LAE)의 개념이 활용

- 미래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AAM)은 UAM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도심 내 이동뿐만 아니라 지역간 이동(Regional Air Mobility, RAM) 및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 UAS)까지 포함하는 통합 항공모빌리티 개념임
 - 산업 초기에는 UAM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에서 AAM으로 개념을 확장 및 정립하면서 AAM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는 추세
- 저공경제(Low-Altitude Economy, LAE)는 중국이 국가전략차원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저고도 공역을 활용하여 창출되는 산업 전반'을 의미
 - 교통수단을 넘어 항공기 제조, 응급의료·항공물류 등 비행 서비스, 항공 통제 및 드론 운행 시스템 구축과 같은 인프라, 광고·컨설팅·보험 등 지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저고도 공역 활용과 연계된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

도심항공교통(UAM), 미래항공교통(AAM), 저공경제(LAE)의 개념



자료: 시를 활용하여 생성

22) UAM Team Korea(2025),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5」

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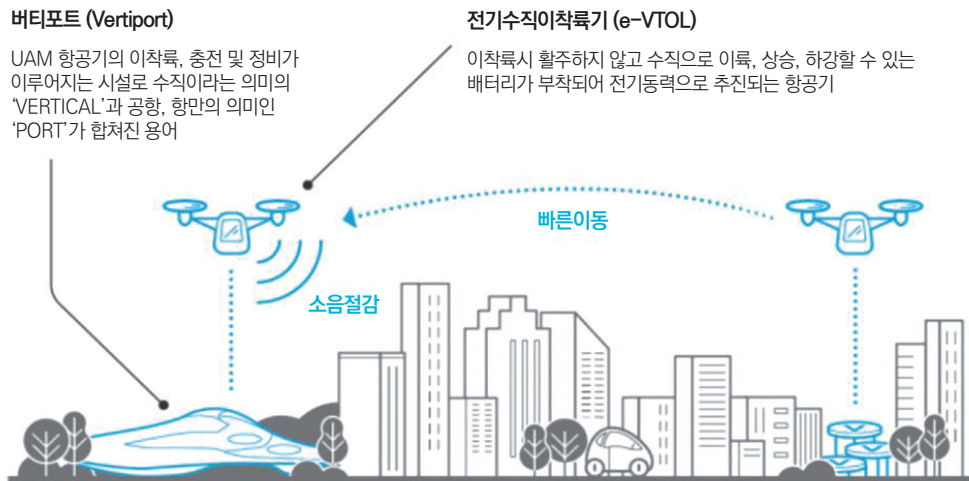
■ 도심항공교통(UAM)은 기체 개발부터 인프라·운항·서비스 등이 다층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산업 생태계로 구성

- (기체 및 핵심기술) eVTOL 설계 및 제조, 전기추진, 배터리, 자율비행 등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도심 및 도시간 항공이동 수단을 제공
- (인프라) eVTOL의 이착륙, 탑승·환승, 충전, 정비 등을 위한 터미널(버티포트²³⁾)과 제반설비
- (도심항공교통관리, UATM²⁴⁾) 비행계획 승인, 항로 배분, 실시간 통신 및 충돌회피 기능을 포함하는 공역 관리체계
- (운항·운영 및 안전 관리) 항공기 운항·운영관리, 정비(MRO), 안전관리체계, 기체 및 운항 인증 등 운영지원 체계

■ 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항공 모빌리티(에어택시), 물류·배송, 응급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

- 공항 연계 이동, 도심 간 단거리 이동, 긴급 의료 이송, 고부가가치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이 가능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자료: 최용운(2023)²⁵⁾

23) 수직이착륙을 의미하는 버티컬(vertical)과 터미널을 의미하는 포트(port)가 합쳐진 단어로 eVTOL의 이착륙과 승객의 탑승, 충전과 정비 기능을 하는 장소

24) 항공교통관리(Air Traffic Management, ATM)는 여객기용 인력 중심의 공역·교통흐름·관제 등 관리체계를 의미

25) 최용운(2023),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토교통위원회.

다.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현황 및 전망

■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은 eVTOL 기체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성장 단계에 있으며,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음

- eVTOL 기체 개발은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상장기업으로 성장
 - 특히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 중국의 이항(EHang) 등 글로벌 eVTOL 스타트업들이 기체 개발과 인증 절차를 선도하고 있음
 - 이외에도 항공 기술을 보유한 전통 항공기업(보잉, 에어버스)부터 대규모 양산 역량을 갖춘 완성차 기업(현대차, 도요타 등)까지 기체 개발에 대한 진출과 투자를 확대
- 일부 기업은 항공기 인증²⁶⁾ 절차에 착수하는 등 상용화 단계에 근접
 -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은 연방항공국(FAA)의 인증 절차를 진행 중
 - 중국 이항(eHang)은 민용항공국(CAAC)으로부터 형식인증(TC), 생산인증(PC), 감항인증(AC)을 모두 획득
 - 국내에서는 V-SPACE가 최초로 형식인증(TC)을 신청하며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다만 eVTOL 산업은 스타트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성상 상용화 지연 시 자금 부담이 확대되어 일부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
 - 독일의 볼로콥터(Volocopter)와 릴리움(Lilium)은 상용화 지연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파산 절차에 돌입

■ 향후 도심 내 이동에서 지역 간 이동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물류·배송,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도심항공교통(UAM)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UAM은 기체(부품) 제작, MRO, 운항관제, 인프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된 산업으로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시장 전망치는 기관별로 편차가 있으나, 2040년까지 전세계 UAM 시장 규모가 약 6,090억 달러(약 800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²⁷⁾

26) 항공기의 항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생산, 운용의 전 과정에서 비행안전성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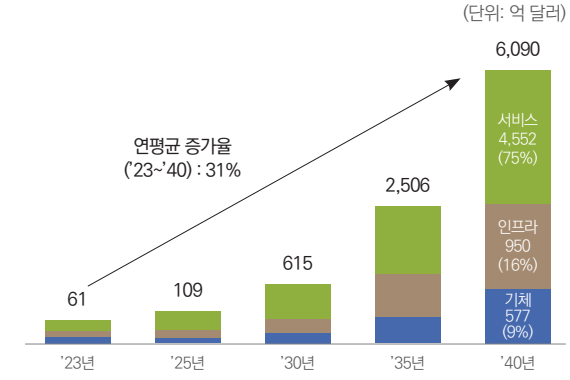
27) 국토교통부(2020),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항공기 인증 단계

형식인증 (Type Certificate, TC)	항공기 설계가 감항기준에 적합함을 항공당국이 승인하는 절차
생산인증 (Production Certificate, PC)	승인된 설계형식에 따라 항공기 및 부품을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승인하는 절차
감항인증 (Airworthiness Certificate, AC)	제작된 개별 항공기가 승인된 형식설계에 부합하고 안전한 운항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

자료: 항공인증시스템

전세계 UAM 시장 전망



자료: 국토교통부

■ 주요국의 도심항공 모빌리티(에어택시) 준비수준²⁸⁾을 살펴보면 미국(1위)과 중국(2위)이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전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이며 종합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기술혁신과 인프라 부문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아 2위를 기록
- 우리나라는 종합 4위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소비자 수용성, 인프라, 기술혁신은 주요국 대비 우수하나, 정책 및 규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도심항공 모빌리티 준비수준: 상위 5개국(2024년 기준)

국가	종합 순위	부문별				
		소비자 수용성	인프라	정책·규제	기술·혁신	사업 기회
미국	1	1	1	1	1	1
중국	2	2	2	21	2	9
영국	3	9	18	2	3	5
대한민국	4	4	4	14	6	19
일본	5	24	6	11	4	4

자료: KPMG, Air Taxi Readiness Index 2024

28) KPMG는 매년 전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eVTOL 도입을 위한 에어택시 준비 지수(ATRI, Air Taxi Readiness Index)를 발표하고 있으며, 소비자 수용성, 인프라, 정책·규제, 기술·혁신, 사업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에어택시 준비지수 평가 항목

부문	평가항목
소비자 수용성	민간 기술활용 수준, 개인 기술수용·활용 역량, 디지털 역량수준, 시장규모 등
인프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동통신(4G) 커버리지, 항공교통 규모 등
정책 및 규제	행정투명성,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수준,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준비도 등
기술 및 혁신	최신 기술 접근성, 국가 혁신 역량, 사이버 보안 역량 등
사업기회	국민소득, 도시화율, 헬리콥터 시장 성숙도, 인구밀도 등

3 주요국의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가. 미국

■ 미국은 도심항공교통(UAM)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추진

- 과거 공급망 취약성으로 인해 소형 드론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준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eVTOL 기체 및 부품 생산의 국산화와 조기 상용화를 촉진
- 미국은 도심항공교통(UAM) 보다 확장된 미래항공교통(AAM)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
- 미래항공교통(AAM)의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감항인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연구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지원을 확대

■ (법·제도) 미 의회는 AAM 기술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

- '22.10월 「Advanced Air Mobility Coordination and Leadership Act」를 제정하여 AAM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전략사업을 추진²⁹⁾
- 동 법에 따라 미 교통부는 AAM 정책을 조정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IWG)을 설치·운영

■ (인증·표준) 연방항공청(FAA)은 운용지침 및 감항기준을 정비

- 연방항공청(FAA)은 기존의 소형항공기 감항기준(Part 23)을 개정('16년)하고,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s)을 적용하여 신기술 항공기를 인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AAM 운용을 위해 운항기준(Concept of Operations, ConOps)을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 운용개념과 기준 체계를 구축
 - ConOps ver.1('20년)에서 유인조종을 기반으로하는 UAM의 단계적 운용개념을 정의하고, ConOps ver.2('23년)에서는 자율·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운용으로 확대

■ (실증·시범사업) 연방항공청(FAA)은 항공우주국(NASA)과 기술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

- 항공우주국(NASA)과 연방항공청(FAA)은 국가기준 기반의 데이터 확보와 실증지원을 위한 'AAM National Campaign'을 추진³⁰⁾
 - 이는 NASA가 2020~30년 동안 추진하는 AAM 기술 실증·통합 프로그램으로, 상용화 단계 진입 전 AAM 기체·운용기술의 안전성 및 운용 적합성을 국가차원에서 검증하는 프로그램

29) Congress.gov, "Advanced Air Mobility Coordination and Leadership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516> (검색일: 2026.3.8.)

30) NASA(2021), "NASA Advanced Air Mobility (AAM) Mission"

■ (정책) 행정명령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전략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산업 육성을 추진

- '25.6월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중심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eVTOL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³¹⁾
 - (실증 확대) 'eVTOL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과 화물 운송·응급의료 분야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eVTOL 도입을 가속화
 - (산업기반 강화) 자국산 무인항공기(UAS)의 우선 활용과 수출 확대, 기술 보호 등을 통해 미국 내 산업 기반을 강화
- '25.12월 「AAM 국가전략 및 종합계획(2026-2036년)」을 수립하고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³²⁾
 - 핵심기술 국산화와 국내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 내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BOX 1] 미국의 미래항공교통(AAM) 국가전략 및 종합계획

■ '25.12월 미 정부는 미국의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미래항공 교통(AAM) 국가전략 및 종합계획(2026-2036년)」을 발표

- (비전) 미래항공교통(AAM) 산업 육성을 통해 미국내 견고한 공급망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미국의 항공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목표) 2027년 초기 실증 및 운항 개시, 2030년 다수 도심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저소음 eVTOL 운항 추진, 2035년 자율비행 상용화를 목표로 함
- (추진 전략) 공역관리,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분야 전반의 경쟁력 강화, 안전 및 국가안보를 전제로 민간투자 및 공공-민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
- (기대효과)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중소도시·농촌지역의 교통 연결성 제고,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31) The White House(2025),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Unleashes American Drone Dominance," Fact Sheets (June 6)

32) 「The Advanced Air Mobility National Strategy: A Bold Policy Vision for 2026-2036」

미국의 「미래항공교통 국가 전략 및 종합계획(2026-2036년)」 주요 내용

핵심축(Pillar)	목표 및 주요 내용
① 공역(Airspace)	- (목표) 저고도 공역의 안전한 통합 - (주요 내용) AAM 교통관리체계(UTM, U-ATM) 확립
② 인프라(Infrastructure)	- (목표) AAM 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주요 내용) 버티포트 설계 기준 확립, 전력·주파수·저고도 기상망 확충
③ 보안(Security)	- (목표) 항공·사이버·공급망 보안 체계 강화 - (주요 내용) 보안 프로그램·신원검증·사이버보호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 정립
④ 지역사회 참여 확대 (Community Planning and Engagement)	- (목표)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및 공공 참여기반 구축 - (주요 내용) 소음 및 환경 영향 관리, 연방 및 SLTT(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정부 협력형 인프라 계획 수립
⑤ 인력 개발(Workforce)	- (목표) AAM 산업 성장을 위한 전문 인력기반 구축 - (주요 내용) 조종·정비·관제·자동화 분야 인력 양성
⑥ 자동화(Automation)	- (목표) 자율비행 기반의 고도 자동화 운항체계 확립 - (주요 내용) 단계적 자율운항 전환, AI 기반 교통관리·충돌회피 기술 개발
⑦ 핵심 권고사항 (Overarching Recommendations)	- (목표) 미국을 글로벌 AAM 선도국으로 육성 - (주요 내용) 민간협력 강화, 공급망 자국화, 연구·실증 확대 및 정책 일관성 확보

자료: 미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나. 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은 단일시장 차원에서 인증·공역·운항·인프라를 포괄하는 통합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UAM의 단계적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인증·표준)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세계 최초로 수직이착륙 항공기용 특별감항인증기준인 SC-VTOL을 제정³³⁾하여 글로벌 항공인증 표준화 기반을 구축
- (규제) '24.4월 EU는 혁신항공교통(Innovative Air Mobility, IAM)의 출범을 위해 인증·공역·인프라·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규제 패키지³⁴⁾를 마련
 - 저고도 디지털 교통관리체계(U-space)³⁵⁾ 구축, 기체 인증 및 운항 규정 정비, 버티포트 등 인프라 기준 마련 등을 통해 IAM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33) 미국은 감항인증을 신청하는 모델별로 감항인증기준을 수립하는 방식이라면, 유럽은 일반적으로 전기추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수립

34) 기존 항공 규정을 eVTOL·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한 혁신형 항공 모빌리티에 맞게 정비한 법·운영 체계

35) 저고도 공역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교통관리 시스템(U-space)

유럽 혁신항공교통(IAM) 규제 패키지 주요 내용

부문	주요 내용
인증체계 정비	EASA의 SC-VTOL 기준과 연계하여 eVTOL 감항·운항·정비 기준을 구체화
인프라 기준	도심 내 수직이착륙장(버티포트) 설계, 안전구역, 접근절차 등에 관한 공통 기술·안전 요건을 제시
운항·운영 기준	조종사 자격, 원격·자율 운항 조건, 운영자 책임 및 안전관리체계(SMS) 요건을 규정
환경·소음 관리	소음 측정·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도심운항 시 제3자 위험도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운영 조건을 설정함
사회적 수용성	회원국·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시민 참여, 정보 공개, 실증사업 기반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2)

- (실증·시범사업) EU는 유럽단일영공 항공교통관리 연구(Single European Sky Air Traffic Management Research, SESAR) 사업을 통해 UAM 운항 개념과 공역관리 체계 검증을 위한 U-space 실증사업을 추진
- (정책) 「A Drone Strategy 2.0(22.11월)」, 「EU Drone Strategy 2.0 Status Update(24.9월)」를 통해 UAM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³⁶⁾
 - (목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도입을 통해 친환경·디지털 전환 전략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
 - (단계적 상용화) 드론 서비스 확대 → 도심 UAM 실증 → 여객 운송(eVTOL)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도입 로드맵을 제시

■ 이러한 공통 규제체계 하에서 유럽 각국은 국가별 로드맵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UAM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독일은 「Advanced Air Mobility Strategy(2025)」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eVTOL의 단계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³⁷⁾
- 프랑스는 eVTOL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2030년 전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인프라·제도 정비를 병행
- 이탈리아는 U-space 기반 저고도 공역 통합을 추진하며, eVTOL 상용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

36) European Commission(2022), "A Drone Strategy 2.0 for a Smart and Sustainable Unmanned Aircraft Ecosystem in Europe."

37) Federal Ministry for Digital and Transport(2025), "Advanced Air Mobility Strategy for the Federal Ministry for Digital and Transport: Taking off to a new in aviation"

유럽 주요국의 UAM 추진 현황

국가	주요 내용
독일	• 단계적 상용화 목표: ('26년) 시험운항 → ('28년) 제한적 운항구역 설정 → ('30년) 서비스 지역 확대 → ('32년) 전국 운항 • 공역 통합(ATM-UTM 연계), 디지털 교통관리체계 구축, 버티포트 인프라 기준 마련 등 제도·인프라를 정비 • 핵심기술에 대한 R&D 강화, 실증사업을 통한 기술검증 지원 • E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을 선도
프랑스	• 파리 올림픽('24)을 계기로 도심 eVTOL 시범비행 실시 • EASA의 SC-VTOL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체계를 적용 • 버티포트 입지·운영기준 및 도심 공역관리 체계를 정비 • 배터리·전기추진·비행제어 시스템 등 핵심기술 R&D를 지원
이탈리아	• EU 항공안전 기본규정에 기반하여 eVTOL 운항·인증·공역관리 체계를 정비 • 저고도 디지털 교통관리체계(U-space)도입 추진 • 'Drone as a Service' 플랫폼을 구축하여 드론 운용 서비스를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관리 • 데이터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산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다. 중국

■ 중국은 전기차, 드론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공경제' 전략을 추진하며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음

- (기술·공급망 자립) 전기차 및 드론 산업에서 축적³⁸⁾한 기술과 부품 공급망 등을 기반으로 기체(eVTOL) 제조 역량을 강화
- (전략적 정책 추진) 중앙정부의 전략적 정책지원과 지방정부의 재정·인프라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상용화 단계로의 빠른 이행이 전개되고 있음
 -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저공경제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0년 2조 위안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³⁹⁾
- (산업간 시너지 확장) eVTOL 및 산업용 드론의 활용범위를 물류·농업·공공안전 등으로 확장하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견고히 구축

■ (법제도) 「민용항공법」을 개정하여 저공경제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 (항공법 개정) '25.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무인항공기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민용항공법」을 개정(7/1일 시행 예정)⁴⁰⁾하는 등 저공경제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38) 전세계 드론산업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DJI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39)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30년 중국의 저공경제 관련 산업 규모를 약 2조 위안(약 2,800억 달러)으로 추정

40) "China revises aviation law to regulate drones, tighten safety rules," 2025, Reuters, (December 27),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revises-aviation-law-regulate-drones-tighten-safety-rules-2025-12-27/> (검색일: 2026.3.8.)

- 개정안은 ▲민용항공의 안전성 보장 ▲민용공항에 대한 보호 강화 ▲일반 공항 인프라 건설 가속 ▲기업 시장진입 조건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
- 중국은 영공의 상당 부분이 군사 목적이거나 또는 엄격한 보안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고도 항공기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 (인증·표준) 저공경제 발전을 위해 eVTOL 감항 인증 기준과 표준 체계를 구축

- (감항인증) '25.12월 「통합 감항기준」 초안을 발표하는 등 eVTOL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 (표준체계 구축) '26.2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저공경제 발표 분야별 표준을 체계화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저공경제 표준체계 구축 지침(2025년)」을 발표
 - 5대 핵심분야(기체, 저공 인프라, 저공 항공교통관리(ATM), 안전감독, 응용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술표준과 관리규제를 연결하는 등 분야별 표준을 체계화

■ (실증·시범사업) 저공경제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관광, 물류,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eVTOL 운항 실증과 시범 사업을 추진

중국 주요 도시의 저공경제 추진 전략

도시	추진 전략
허페이	eVTOL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저공경제 실증 거점으로 육성
항저우	디지털 교통관리 플랫폼과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연계하여 관광, 의료 등 응용서비스의 실증 추진
선전	연구개발(R&D) 지원, 세제·재정 유인을 통해 eVTOL 제조·상용화 기업을 집중 육성
쑤저우	항로·이착륙장 등을 구축하는 한편 물류·도시교통·관광 등으로 확대
청두	서부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응급의료·공공서비스 중심 운항실증 확대
충칭	산악지형에 따른 교통 정체 해소 및 지역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eVTOL기반 통합 운항모델 구축

■ (정책) 중국은 '저공경제'⁴¹⁾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중앙·지방정부 주도로 산업 육성을 본격화

- '21년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 계획 개요(国家综合立体交通网规划纲要)」에 저공경제를 포함하고, '23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에도 포함
 - 중앙정부가 정책방향과 관리체계를 총괄하고, 지방정부의 시장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유도
- '24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반항공장비 혁신 및 응용 실행계획(2024-2030)」을 발표하고, '30년까지 저공경제 시장규모 1조 위안 달성 목표를 제시
 - ▲ 산업 기술 혁신역량 강화 ▲ 공급망의 강화 ▲ 핵심 분야의 실증 확대 ▲기초지원체계 구축 ▲ 통합 산업 생태 조성 등 5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

41) 저공경제(低空经济)는 유인·무인 항공기(헬리콥터, 드론, 플라잉카 등)의 저고도 비행을 기반으로 제조·서비스·인프라 등 연계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경제 개념

- '2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저공경제를 국가차원의 중점 육성산업⁴²⁾으로 명시하면서 저공경제를 본격적으로 육성
 - 이외에도 공업정보화부는 저공경제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고도 산업 고품질 발전⁴³⁾ 추진 방향을 발표('24.11월)
 -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저공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저공 경제발전사(低空经济发展司)를 설립('24.12월)

중국의 저공경제 관련 정책

정책	주요 내용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 계획 개요」('21.4월)	저고도 공역 활용을 국가 교통망 계획에 포함
중앙경제공작회의('23.12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방침 제시
정부업무보고(양회, '24.2월)	저공경제를 신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신흥산업으로 규정
「일반항공장비 혁신 및 응용 실시계획(2024~2030)」('24.3월)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명시 '30년 저공경제 시장규모 1조 위안 목표
「녹색항공제조업발전개요」('23.10월)	'25년 민간 전기항공기 상용화, eVTOL 시범운용 실현 전기·저탄소 항공기 개발 및 친환경 제조 전환
「미래산업 혁신·발전 촉진 실시의견」('24.1월)	미래 핵심 산업 지정 및 기술 자립화 추진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24.2월)	신산업 투자·공급망 안정화 논의

라. 한국

■ 우리나라도 UAM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UAM 상용화를 위해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법제도 기반과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
-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을 통해 기체 운항, 교통관리(UATM), 버티포트 등 핵심 기술과 운용체계를 단계적으로 검증

■ (법제도)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23.10월)하여 UAM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기존 공항·고정의 중심 항공법령 적용에 따른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AM법)」을 제정
- UAM 법은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기존 항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기술 개발·실증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

42) 신소재, 항공우주,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 등과 함께 저공경제가 전략적 육성 분야로 선정

43) 전기추진·배터리·항공전자·자율비행 등 핵심기술 자립화와 기체 양산·상용화 촉진, 공급망 안정화, 표준·인증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통합 산업생태계 고도화 추진

■ (인증·표준) K-UAM 실현 및 UAM 상용화를 위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를 발표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을 통해 K-UAM 운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발전방향, 운항시나리오, 운용모델 등을 제시('21.9월)
- 이후 K-UAM의 상용화 일정이 2028년으로 변경되면서 새롭게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5」를 발표('25.8월)

■ (실증·시범사업)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을 추진 및 지역별 시범사업 지원

- (실증사업) 국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10개 컨소시엄(43개 기업)이 참여하는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단계적 실증 및 공역통합체계 안전성을 종합 검증
- (지자체 시범사업) 지역별 특성 및 사업 구체화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예산·R&D·실증·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UAM 생태계를 조성⁴⁴⁾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자체 계획 주요 내용

지역	주요 내용
제주	버티포트 중심(제주공항, 중문ICC, 성산포항)으로 관광·공공·교통형 UAM 상용화 추진
대구·경북	대구·경북권 UAM 공공형(재난예방,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치안관리 등) 시범사업
전남·경남	UAM으로 연결되는 남해안 관광벨트 실현
울산	태화강을 따라 하나되는 U-Line 광역교통 서비스(KTX 울산역-동해선 태화강역 연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하늘길 프로젝트(공항연계형을 대표 노선으로 선정하여 주요 도심과 연결)
부산	하늘-바다-땅을 연결하는 통합형 UAM 버티포트 구축(KTX, 도심, 크루즈 연계)
충북	한강과 백두대간을 지키는 소방재난·응급의료 UAM 공공안전플랫폼
전북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복지(의료형) 서비스
강원	관광지, 공항, 병원 등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자료: 국토교통부

■ (정책) 정부는 「K-UAM 로드맵('20.6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26.2월)」 등을 통해 UAM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⁴⁵⁾

-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K-UAM 로드맵」('20.6월)을 수립하여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
-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에서 UAM 시장 선점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해 부품산업 육성, 핵심기술 확보 및 로드맵을 수립, 실증을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21.2월)

44) 국토교통부(2025), 「K-UAM 시범사업, 지자체 맞춤형 지원 본격 추진」, 보도자료 (8월 26일)

45) 재정경제부(2025), 「K-UAM 및 드론 등 모빌리티 분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방안 모색」, 보도자료 (6월 19일)

-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5~2029)」에서 항공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UAM의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안전체계를 반영('25.12월)
-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26.2월)를 통해 2028년 UAM 상용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제도·인프라·기술개발을 포함한 종합 추진계획을 제시⁴⁶⁾
 - 2028년 지역주도형 UAM 서비스 출시, 2030년 도심-공항 노선 UAM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27년까지 기체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28년까지 버티포트·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을 구축

[BOX 2]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UAM 상용화

■ '26.2월 국토교통부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AI 기반 모빌리티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

- (목표) AI 기반 모빌리티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추진 과제)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 ▲항공 모빌리티로 하늘길 이동 혁신(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실현) ▲탄소중립 모빌리티 대전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모빌리티

■ 추진과제 중 하나로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 '28년 관광·의료·소방 등 UAM 공공 선도사업 서비스를 개시하고, '30년 민간 주도 교통서비스 본격 도입
- 활용도가 높은 소방·농업 등 5대 분야 드론을 국산화하고 제조기반을 조성, 레저 등 활용 저변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UAM 상용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	
상용화 기반 조성	• UAM 안전체계 정비('27) 및 인프라 기준 구축 전략('26) 등 마련 • UAM정보시스템 구축('28), UAM전용 주파수 할당('28)
핵심기술 연구·개발	• 성장기 대비 핵심기술('24~'26) 및 실증기술 개발('27~)
서비스 상용화	• 실증 고도화 및 상설화('26~) • 지역시범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버티포트 기본계획·설계 지원('25~) 등을 통해 초기 서비스 착수('28)

자료: 국토교통부

46) 국토교통부(2026),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보도자료 (2월 26일)

5 결론 및 시사점

■ UAM은 기체 제조를 넘어 서비스 및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확산되는 융복합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eVTOL 등 기체 개발을 중심으로 운송, 관제,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산업영역이 확장되고, 항공, 건설, 통신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되면서 UAM 기반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주요국은 UAM 상용화 및 글로벌 선도 지위 확보를 위해 법·제도 정비, 인증·표준 체계 구축, 실증사업 등을 추진

- (미국) 독보적인 항공산업 기반을 토대로 미래 항공산업의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미래항공교통 전략을 추진
- (EU) 단일화된 인증·공역·운항·인프라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회원국별 로드맵과 연계하여 UAM 상용화를 추진
- (중국) 전기차, 드론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기체 인증을 완료하는 등 상용화에 앞서 있으며, 중앙·지방정부 협력하에 '저공경제' 전략을 추진
- (한국) 'K-UAM 로드맵' 수립 및 「도심항공교통법」 제정 등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실증사업을 통해 상용화 준비를 추진

주요국의 UAM 추진 현황

구분	미국	EU	중국	한국
UAM개념	미래항공교통(AAM)	혁신항공교통(IAM)	저공경제(低空經濟)	도심항공교통(UAM)
인증 기준 및 현황	기존 항공기 인증체계 활용(특별조건 추가) Joby, Archer社 FAA 인증 진행	SC-VTOL 별도 마련 Volocopter社 EASA 인증 진행	통합 감항인증 초안 마련 EHang 社 CAAC 형식·감항·생산인증 완료	기존 항공기 인증체계 활용(특별조건 추가) V-SPACE社 국토교통부 인증 신청
법제도 및 정책	「AAM Coordination and Leadership Act」 제정 AAM National Strategy ('26~36)	「EU IAM 규제 패키지」 EU Drone Strategy 2.0	「민용항공법」 개정 '저공경제' 육성	「도심항공교통법」 제정 K-UAM 로드맵,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특징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 활성화	단일시장 통합을 위한 규제 및 표준 마련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상용화 기반 구축

■ 하지만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인증, 제도 정비, 경제성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

- (기술) eVTOL 기체 인증이 지연되면서 일부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용화 일정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 (제도) 실제 도심운행 환경을 반영한 세부적인 운영 기준과 사고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세부 법령이 부재
- (경제성) 버티포트·통신망·교통관리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나,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반면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
- (사회적 수용성) 항공기 소음, 사생활 침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

■ 이와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UAM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

- (기술 혁신) 자율비행 시스템, 저고도 항공교통관리(UTM), 소음 저감 등 핵심기술의 성숙도가 상용화 속도를 좌우하므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안전성 검증 및 인증 기반을 강화할 필요
- (공급망 강화) 주요국이 핵심 부품 및 기술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우선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핵심 부품 및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강화가 필요
- (초기 시장 지원)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사업자가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세제 및 투자 유인 등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확대, 신용보강, 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필요
- (산업 확장) 기체 제조 중심 산업을 넘어 UAM 관련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으로 산업 확장이 필요

nabO World Economy Trends & Issues

대외경제동향 & 이슈

2026년 3월호 | 통권 제5호

발행일 2026년 3월 20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5-002148-08
ISSN	3059-152X

